

성도의벗 3
1974

영감의 메시지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문을 지날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몇번이고 되풀이하여 읽었습니다. 배속부터 앓은뱅이로 태어나 한번도 걸어 본 적이 없는 가엾은 사람이 성전의 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날 때 그는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이며 복음 전도의 동반자인 요한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에 앓은뱅이도 주목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4-6)고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을 그려 볼 수 있으며 "이 사람은 내가 걷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나? 내게 걸으라고 명하니"라고 생각했을 그 사람의 마음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여기서 끝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걸으라고 명하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행 3:7)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자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함께 발을 띄어 놓아 봅시다. 함께 걸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그대가 축복을 받았으므로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 주는 위대한 사



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은 기쁨에 쌓여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땅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높은 곳에 서야만 그 사람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대하는 모범을 몸소 먼저 보여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이 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

씨를 안겨 줄 수 없습니다. 교사인 여러분께서 전하는 간증, 여러분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의 하나이며, 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려 할 때 여러분 자신도 그들을 도와 줄 수 있을만큼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던 좀더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974년 3월호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스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4년 3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 104 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 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인: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 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기쁨과 행복 **2**

매리온 지 롬니

신약성경의 기원 **4**

시 캔트 던포드

교회 복지 프로그램 **8**

주니어 라이트 차일드

질의 응답 **12**

루드로우

왜 음악이 예배에 중요한가? **14**

로버트 제이 매튜스

눈물은 결코 희망을 낳지 못한다. **16**

앨레인 캐논

동 타이와 용 **21**

페이스 앙림 뉴욕

유월절 **24**

이동하는 씨앗 **26**

페기 카이젤

심심풀이 **28**

인터내셔널호의 항해 **29**

윌리엄 지 하틀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32**

말론 알 언터

성령의 끊임없는 노력 **34**

프랑크린 디 러차즈

내가 읽는곳에 내마음이 있다 **37**

에스 달워스 영

끊임없는 신앙의 행사 **40**

오 레슬리 스톨톤

너희는 거룩한곳에 설지어다 **43**

해럴드 비 리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46**

내외소식 **47**

정가 1 권 10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1974년 3월호 성도의 벗 제10권 제3호

기쁨과 행복

리 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인간이 이 세상에 처해 있게 된 상황과 영원한 진보의 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로 이루어졌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함ियो,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파이이서 2: 24-25)

기쁨이란 1. 바람직한 일을 성취했거나 기대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심정 상태; 반가움; 즐거움 2. 행복한 상태; 열락 3.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행복이란 안녕의 상태라고 되어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행복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계획”으로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는 길을 따라야 하는데 그 길이란 바로 미덕이요, 정당함이요, 성실성, 거룩함,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의 순종 등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5-56페이지)

행복이 경제적인 성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구세주의 다음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눅 12: 15)

물론 살아나가는 데는 생활 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는 이처럼 많은 세상의 재화가 필요하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충분하지 못할 때 영적인 것에서도 충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천에 옮길 때 세상적인 것에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인간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경전은 구세주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한 기적과 같은 병고침의 은사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병고침은 환자를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

에서 벗어나게 해주나 반드시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은 영적으로 병고침을 받는데 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물론경 모사이야서 4장의 첫 네 구절을 읽어 보면 베냐민왕의 이야기를 듣고 단의 무리들이 성령의 권세로써 자신의 범법 행위를 깨닫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법을 깊이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다.

“...오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이다”(모 4: 2)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찼고, 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신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정신은 모두 병에 걸려 있다. 어느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울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 교성 59: 23

누구도 하나님의 영의 권세로써 정신적인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온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다. 용서를 받을 때 정신의 병고침을 받게 되고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된다. 물론이 모로나이서 7장에서 열거한 사랑의 속성인 친절, 오래참음, 겸손, 사랑 등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한 후에야 행복이 증진됨을 느끼게 된다. 끝으로 인간은 물론이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한 사랑이라고 정의한 사랑을 자신의 마음 속에 길러야 한다. 이것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길이다.

리하이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갖게 될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약속한 모든 조건들을 이행한다면 그들은 지

상에서는 물론 부활을 기다리는 영의 세계에서와 그 후 영원한 기간 동안에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 : 23)라고 말씀하셨다.

경전은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영이 겪는 행복하거나 비참한 상태를 분명히 설명해 준다. 예언자 요셉이 “교회 의 율법을 포함한 계시”라고 한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흘리며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



우리는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길을 따라야 하는데 그 길이란 바로 미덕이요 정당함이요, 성실성, 거룩함, 하느님의 모든 계명에의 순종 등 인 것이다.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화 있을 진저,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쓴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42 : 45-47)

그래서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안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 주셨으니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

“죄 많고 불의한 영들은...어둠의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저들이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겠으니, 이는 ...저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엘마서 40 : 11-13)

야곱은 니파이이서 9장에 기록된 위대한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불사불멸의 몸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심판대에 나서야 하느니라. 그 때에 심판이 내려지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성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믿으며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되 그 수욕을 부끄러워 하지 않은 의로운 자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마련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니, 저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가득차리라”(니파이이서 9 : 15, 18)

리하이가 한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이 2 : 25)는 말은 참으로 진리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다음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 : 39) 우리는 또한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안톤에게 한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 41 : 10)라는 말도 진실된 것임을 안다.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 : 27)

“너희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여 영원한 죽음(재앙)의 길이나 영생(기쁨과 행복)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니파이이서 10 : 23) []



Marion G. Romney



행
1974년 3월호

신약성경의 기원

시켄트 던포드

기원후 64년 경의 로마는 웅대한 도시였다. 인류 역사상 막강했던 한 제국의 주축이었으며 그 세력은 영국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미쳤다. 예수가 탄생할 당시 그곳을 통치했던 초대 황제 오거스터스는 자기가 대리석으로 로마를 건설했다고 자랑했다. 따라서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도 무수한 건축을 세워 앞을 다투어 영원한 도시를 치장했으며 그 유적이 오늘날에도 방문객을 놀라게 하고 있다.

기원후 64년은 빈민가를 휩쓴 대화재가 발생한 해였다. 자신이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한 반미치광이 황제 네로는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웅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들이야 어떤 고통을 당하던 개의치 않고 마구 횡

포를 부렸다. 방화범이 황제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그는 교묘하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당시 로마에 있던 새로운 종파 중에는 이미 백성들의 인기를 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으니 이들이 완전한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다. 체포가 시작되었으며 네로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 자기의 전용 경기장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시터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야생 동물의 가죽으로 덮어 씌우고 개를 풀어 물어 뜯게 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 십자가에 달아 화형에 처하니 밤이 대낮처럼 밝았다. 그들이 가장 혹독한 벌을 받아 마땅할 범죄자들이었지만 이 일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

인의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들도 죽게 될 것임을 알았으므로 동정심이 일기 시작했다. 1

이 두려운 날이 있는지 얼마 안 되어 마가는 순교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가복음으로 알려진 작은 책을 썼다. 그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차 들어 온 그리스도의 놀라운 업적을 기록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일의 지 10년이나 15년쯤 되었을 때 마태와 누가가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들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에다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설명해 주는 기타 중요한 자료를 더해서 그들의 책을 만들었다. 요한복음은 이보다 늦게 나왔는데 (기원후 90-100), 이것은 신약성경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씌어진 것이다.

왜 그들은 기록하는데 그토록 긴 시간을 요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1)선교 사업이 너무도 시급해서 기록할 만한 여유가 없었거나 (2)실제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두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고 (3)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2

이렇게 복음이 늦게 기록되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자들은 그들이 기록한 말이나 사건들을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했을까? 그 당시에 이미 예수의 이야기가 의곡되고 변조될 수 있었을까? 복음서의 저자들이 믿을만한 구두 자료 이외에도 초기의 기

록에서 많은 사항을 얻었다고 경전 연구자들이 믿는 점으로 보아서도 이러한 점은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다. 누가는 그의 기록서문에서 자기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그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증거했다. (눅 1:1-4) 2세기 초 소아시아 헤라포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마태는 예수의 가르침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으며, 각 사람은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해석하였다.”³ 이 말은 마태가 십이제자 중에서 역사가였고 후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사용한 일기를 썼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쉽다. 파피아스는 학자들이 독일말 Quelle(샘)에서 따서 Q자로 표시하는 복음이 쓰이기 이전의 문서를 말한 것 같다. 성경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예수의 가르침에 관해 많은 점을 공동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이 자료를 위해 사용한 것이 Q라고 주장한다. 물론 물론인 성경 학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거”⁴가 되는 물론경이 성경의 참됨을 증거하는데 비한다면 이러한 모든 증거는 이차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복음은 이때 처음으로 체계가 잡혔지만 이것이 최초의 신약성경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은 놀라운 힘으로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누가는 그러한 놀라운 움직임을 간단한 역사로 기록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복음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메시아를 성도의 빛 1974년 3월호

보고 그의 상처를 만져본 후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대로 열의와 사명감에 찬 이들은 열심히 좋은 소식을 전했다. 전해오는 말로는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한다. 도마는 동쪽으로 인도까지 갔다고 추측된다. 빌립보는 애굽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이스에 갔고 베드로는 팔레스타인과 극서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가르쳤다. 그들의 복음 전파에 견줄 만한 일이 없었다.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단호한 대답은 그들의 자세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 사도행전은 주로 가장 용감했던 기독교인의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사명을 말해 주고 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바울은 교회에서 야기되는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편지를 많이 썼다. 이러한 서한이 기록으로 남겨진 신약전서의 첫 번째 것이며 기원후 50년과 기원후 94년 사이에 작성되었다. 바울은 기독교 교회로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 선생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서한 중 많은 내용이 무제가 있고 동시대인 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의 서한은 열정적이고 유창했고 매우 교육적인 가치가 높았다.

히브리서, 일곱 가지의 일반서한, 요한계시록 등 신약전서의 나머지 부분은 교회 내외에서 일어난 어려운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 1세기 후반에 쓰였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통치하에서 생긴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이다. 도미티안(기원후 81-96) 황제 치하에서는 많은 주에서 우상숭배를 강제로 의무화시켰다. 많은 성실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의 박해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사도 요한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로마 통치와 종교에 항거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이다. 그는 오랜 세월을 두고 선악이 싸워온 투쟁사를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썼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로서 이야기를 끝맺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였다. 저자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으며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나 제사들 보다 우월함을 입증하려 했다.

교회가 이단 교리나 종파 분리구분 때문에 직면하게 된 또 하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당시 가장



위험한 그노스티시즘(초기 기독교 시대 신비주의적 이단설)에서 볼 수 있다. 바울의 서한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단교의 초기 출현을 공격한 내용이 있다. 이 그노시스 운동은 2세기 경에는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 요한의 세 서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주로 위험한 이교도로부터 교회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씌어졌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씌어진 2세기 초에는 신약성경이란 책이 없었다. 이렇게 부분적인 책들이 어떻게 수집되어 한 권의 책이 이루어졌을까?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받아들인 성경은 구약성경이었으며, 그들은 유대교도들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일부의식을 거부하셨으며 자기는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가르침은 구약성경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었던 것 같다. 바울 자신도 역시 교리상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계시가 율법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갈: 24)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예수나 사도의 가르침이 구약성서에 필적하거나 이보다 큰 권위를 지녔던 것 같다.

사도행전은 사도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그들의 말과 서한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자의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영감(고전 2)임을 분명히 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

암은 것”이므로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갈 1: 11-12) 그는 자기가 기록한 것은 “주님의 계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전 14: 37)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테후 2: 15)고 강조했다. 또한 디모데전서나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초기 신약전서를 성경으로 보고 있다. (딤후 5: 18, 베후 3: 15-16) 결론적으로 보아 사도들은 그들의 저서가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성경과도 같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기록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그것을 영감받은 사도의 문학 작품으로 아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울의 서한은 구약전서에 나오는 성구와 함께 교회의 예배에서 읽혀졌다. (골 4: 16, 테전 5: 27)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초기 기독교 문서는 오늘날 우리가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같이 다시 기록되고, 복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저자의 기록을 오늘날과 같은 한 권의 성경으로 수집하는 데는 교회의 어떠한 힘이 역사하였겠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회가 2세기에 접어들자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값진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2)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믿음이 팽배해져서 교회를 교리나 조직 면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점점 증했다. (3) 예수와 사도들에 관한 거짓된 저서들이 유포되어 거짓된

기록과는 다른 믿을 만한 기록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4) 변질된 교리가 교회를 괴롭혀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혼란을 가져 왔다. 이러한 변질되고 비판이 많은 때에 진리로 받아들여질 권위있는 교리 책을 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신약전서를 편찬하는 운동에 박차를 가한 사람이 2세기 경 배도를 행한 사람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것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소아시아 폰터스에 살던 부유한 선박 소유자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었다. 마르시온은 유대교와 그 영향에 따라서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했다. 그는 교회가 구약전서를 배격하고 자신의 캐논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논이 누가복음과 바울이 쓴 열 개의 서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의했다. 마르시온은 파문되었으며 강력한 배도 단체를 이끌고 도피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경전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되지 않아서 다른 저명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책의 목록을 들고 추천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200년간 기독교 교회와 지도자들은 주의깊게 기독교의 서적을 검토하였고 마침내는 27개의 작은 책자와 서한을 선택해 신약성경 법전으로 삼게 되었다. 처음부터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한을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후에 나온 기독교 저서나 의문이 갈 만한 내용에 관해서도 논쟁이 집중되었다. 문제를 야기시킨 것들은 허위 복음, 행적, 기록들이 늘었기 때문이며 이런 것

들은 모두 사도가 저자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엠 알 제임스가 쓴 신약 외전은 600페이지에 달하는 모조작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가 캐논 안에 담긴 심각한 내용을 쉽게 저해시킬 수 있는 환상적이고도 이단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은 예수가 생존했던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 관해 의심을 표명하고 그기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모조해 냈다. 예를 들어 그노시스 작품인 로마의 복음은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동물을 만들고 그것이 살아나게 함으로써 친구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⁶ 같은 작품에서 요셉이 널빤지를 너무 짧게 잘라 실수를 범한 예를 들고 있다. 어린 예수가 이 판자를 집어 들고 기적적으로 당겨서 원하는 길이가 되게 한다.⁷ 마리아의 몽소승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천주 교회는 이것을 있을 수도 있는 진리로 후일에 받아들였다.⁸ 사도들에 관해서도 이것 처럼 외곡된 이야기가 많다. 중세에 이러한 거짓 꾸며낸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를 끌었으며,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에는 아직 까지도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경과는 달리 신약전서에 자리를 차지할 만한 성스러운 기독교의 책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 중의 중요한 몇 가지는 2세기 초에 씌었으며, 여기에는 크레멘트의 서한, 바나바의 서한, 허마스의 목자, 사도의 가르침, 베드로의 목시록 등이 포함된다.

기원후 200년 경에는 신약전서에 어떤 책이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대체로 합의되었다. 이에 관한 성도의 빛 1974년 3월호

좋은 증거로 소위 류래토리안 프래그먼트라고 불리는 원고가 있는데 이것은 기원후 180년부터 전해 오는 것으로 여기에는 로마 교회의 경전의 목록이 실려 있다. 이 원고는 18세기에 이것을 발견한 이태리 고고학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네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서한 13가지, 계시록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베드로의 목시록을 조건을 두고 승인하고 있으며 허마스의 목자가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의 서한 및 계시록은 일부 교회에서 근 100년을 두고 논란을 계속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콘스탄틴 황제와 동시대에 살았으며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기원후 325년에 공인을 받기 위해 앞을 다투던 책들을 (1)인정할 만한 책 (2) 문제가 되는 책 (3)거짓된 책 (4) 불경하고 범위를 벗어난 책으로 분류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⁹

이러한 사소한 시비는 결국 해결되었으며 경전의 기준으로 더 이상 논란을 삼지 않았다. 성 예로움이 성경 전권을 라틴어로 번역하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예로움의 신약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27권의 책을 모두 담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경전이나 계시가 있을 수 없다고 폐쇄적인 기준에 합의를 본 것은 말일성도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캐논을 주의깊게 선택하고 변경해서 만든 신약전서에 대한 신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어떤 책이 교리상 건전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에게 사용되지도 않으며 저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경전으로는 거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비길 데 없는 종교 기록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더해 준다.



주석

1. 타시터스, 아나레스, 15 : 44. 레이 씨 퍼트리 저 기독교사(잉글우드 크리프스, 뉴 저어지 : 프렌티스 홀 출판사, 1962년) 42페이지
2. 예수는 자기의 재림 시기를 사도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셨다. (사도행전 1 : 6-7 참조)
3. 유세비우스 저 “그리스도에서 콘스탄틴까지의 교회사” 지 에이 윌리엄스 역(뉴욕 : 뉴욕 대학 인쇄부, 1966년) 152페이지
4. 니파이일서 13 : 40, 물몬서 7 : 8-9 참조
5. 캐논이란 말은 “법규”나 “표준”을 뜻한다. 기독교의 캐논이란 교회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책들을 말한다.
6. 몬테그로메스 제임스, 신약전서 외전(옥스포드, 클레렌돈 출판사, 1953년) 49페이지
7. 같은 책 57페이지
8. 같은 책 194페이지
9. 유세비우스, 134-35페이지

교회 복지 프로그램



쥬니어 라이트 차일드와의 대화



교회 복지 봉사기구 책임자
쥬니어 라이트 차일드

1 936년 주님께서서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을 밝혀 주셨으며, 대관장단은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젊은 해롤드 비리 스테이크 부장을 불러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하였다. 그후로 몇 십 년이 지난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범교회적인 기구로 성장했으며, 풍요한 때는 물론 궁핍한 때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교회 회원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구실을 담당해 왔다.

1972년에 쥬니어 라이트 차일드 형제가 현재 복지 봉사 기구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다. 관리 감독단의 지도를 받아 그는 모든 회원이 물질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는 중책을 맡고 있다.

엔사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차일드 형제는 최근에 소개된 새로운 목표는 물론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인도해 온 원리인 복지 봉사 기구의 원리를 설명해 준다.

교회 복지 봉사 기구 책임자

쥬니어 라이트 차일드

기자: 복음과 관련하여 복지 봉사 프로그램이 갖는 역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일드 형제: 복지 봉사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자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과 원리를 적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되돌아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영적인 진리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할 행동들은 복지 봉사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되고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요 14:21) 이것이 봉사의 원리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 2:17)

기자: 이러한 성장 및 봉사의 개념과 다른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는 어떤 점에서 관계가 있을까요?

차일드 형제: 우리는 아무리 선의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하인을 위한 진정한 희생이란 복음 가운데서 성장되는 영원한 해의 왕국의 원리로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자: 이러한 봉사와 희생의 원리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함합니까?

차일드 형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모든 가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후 5:8) 교리와 성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가장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성 83편 참조) 스테판 엘 리차즈 장로는 가족의 유대에 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늙으신 부모나 친척이 구호 기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입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회 말씀, 1944년 10월 8일)

기자: 일부 교회 회원은 교회 내의 형제나 자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고 오히려 정부 기관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일드 형제: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되지만 가난하나 합당한 교회 회원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그들은 그들을 도우려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를 막아 주며 스스로도 복음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필요한 만큼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교회의 다른 축복에 참여합니다. 그들도 역시 주님의 계명을 지켰고 금식 헌금에 참여했으며, 이제 기꺼이 복지 계획에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은 그들이 받은 지원에 대해 “능력의 한도 내

에서” 일을 할 것이 기대되므로 조금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의 원리가 복지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기자: 금식 헌금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복지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금식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일드 형제: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봉사, 스테이크나 와드 복지 계획을 통해 나온 물품, 필요한 경우 헌금 등으로 돕게 됩니다. 헌금 지원은 교회 회원의 금식 헌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금식을 하고 헌금을 바치는 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금식일에 24시간을 금식하고 해당 금액을 헌금하게 됩니다. 이 기금은 와드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며, 그 잉여분은 금식 헌금이 모자라는 와드를 위해 사용됩니다. 금식과 헌금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계명을 지킬 때 영적인 축복과 힘을 얻게 됩니다.

기자: 차일드 형제님, 교회가 인정한 공공 기관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차일드 형제: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쓸 기금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자: 교회 회원은 복지 봉사 프로그램에 몇 퍼센트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차일드 형제: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혜택을 받느냐는 질문이라면 3.5퍼센트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영적인 혜택은 말일성도면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주고, 희생하며,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로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기자: 와드에서는 이러한 봉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직됩니까?

차일드 형제: 와드 회원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은 와드 복지 봉사 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봉사가 매우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다시 한 번 독립하고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준비해 주는 위원회와 신권 정원회의 역할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일로 일곱 자녀를 키웠던 한 정원회 회원이 심한 골수염을 앓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고 친척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복지 봉사 프로그램은 감독의 지시 아래 자녀에게 필요한 물건과 보험으로도 충당할 수 없었던 나머지 병원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벨기세맥 신권 정원회에서는 이 아버지에게 2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는 유능한 경리 사원이 되었으며 정원회에서는 그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록 목다리를 짚고 다니지만 완전히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제사와 아내에게 열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방이 다섯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으며 수입도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의 정원회 회원은 그의 집을 확장해 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루를 완전히 배로 늘렸고, 한 방에서 두 명 이상이 잠을 자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목욕탕도 2개를 더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가장이 세상을 떠났으나 정원회가 모든 비용과 노동력을 부담했습니다. 이 부인과 자녀들은 이제 좋은 집을 갖게 되었고 부채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원회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원회 복지 사업의 극적인 몇 가지 예이나 이와 똑 같이 중요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권 정원회는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각 가족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을 돕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 내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직업 상담, 이직, 직업 훈련, 이와 유사한 봉사 등을 뜻합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면이 예산이나 가족 재정입니다. 재정적인 관리를 잘못했을 때 가장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교사, 사업가, 계리사 등이 봉사할 수 있는 부문이 바로 이러한 면입니다.



지난해에 사우스 다코다주 래피드시를 휩쓸었던 홍수때처럼 재앙이 휘몰아쳐 올때에도 교회의 각지부가 회원을 돕는 책임을 맡았다. 래피드시 성도들은 숄트 레이크시에 있는 교회 본부의 지원을 최소로 줄이고 스스로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노동의 원리란 근본적인것으로 어린시절부터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다.

여러분께서 교회 회원의 전반적인 필요를 생각해 보신다면 활용될 수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고, 희생하고 성장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술이나 능력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 대관장께서는 “여러분이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부부에게는 행복한 부부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사업가, 상인들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미망인 중에서 마당의 나무에 손질을 해야 하고, 페인트 칠을 해야 하며, 수리를 해야 할 곳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기자 : 신권 복지 문제와 아른 신권은 어떠한 관계

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차일드 형제 : 학교를 중퇴하고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맡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후일에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을 예비하는 방법으로 교육이나 직업 상담, 지도 등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론 신권의 다른 훌륭한 프로그램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준비와 교육의 모든 개념이 아론 신권 훈련의 주요 부분이 됩니다.

기자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차일드 형제 : 자선 봉사 활동이 있지요. 자선 봉사 활동마저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조사한 어느 스테이크에서 병원에 입원한 70이 넘는 노인 중에서 반 수 이상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서서 “제가 하루에 한 시간씩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혹은 잔디를 깎아 드리고 신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노인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복지 봉사란 도움을 줄 사람이나 받을 사람을 한데 뭉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호부조회 회원, 상향회의 청년, 특별 이해반원 누구나가 신권의 지도 아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 :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재난을 당한 지역에 구호의 손길을 뻗쳐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호의 노력은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까?

차일드 형제 : 교회가 조직된 이래 감독은 회원의 물질적인 요구를 돌보는 일을 책임져 왔습니다. 만일 어느 감독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물자가 부족하게 되면 그는 그의 잉여 물자를 가지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 와드와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 교회에 해당되는 생산 과정 및 분배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도움을 주어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교성 78 : 14)이 하나의 원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이 스

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다음에 와드, 스테이크, 지역 단위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전교회에 쓸 물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자는 큰 재난을 당한 곳에 교회 본부가 특별히 승인하여 사용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주 래피드 시티를 대홍수가 휩쓸었을 때 그곳의 성도들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 작업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교회 조직의 노력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 본부로부터는 아기 음식, 기저귀, 담요 등만을 한 추력 보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는 니카라구아에서 있었던 지난 해 12월의 대지진이었습니다. 교회 본부에서 이들에게 보낸 것은 장티프스 혈청 주사약 뿐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모든 지원을 다 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성도들이 구호 물자를 장만했고 정부 당국자와 노력하여 어려운 일을 처리했습니다. 마나구아를 도울 때는 비정부 기구란 우리 교회 밖에 없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 : 차일드 형제님께서서는 1년 반 동안 교회 복지 봉사 기구 책임자로 일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일드 형제 : 좀 이상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성도들이 예녹의 시에 살던 사람과 같게 되게 하는 것이 복지 봉사 기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살았으며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모두 들리워졌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영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서로를 잘 보살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재화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1834년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교리와 성약 104 : 18) ㉞

질의응답

이곳에 소개된 대답은 참고로 쓰여진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이것은 ‘...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라는 니파이일서 3장 7절의 말씀과는 혼동을 빚습니다.”

대답 : 루드로우



1974년 3월호

이 질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자녀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알아 보는 일입니다. 경전은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경전은 그들이 선악을 모르는 순진한 상태에 있었다면 자녀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일례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리하이의 말씀을 살펴 봅시다. “저들 시조는 또한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에 무지한 상태에 머물어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나.”(나이 2:23) 이 성구는 아담과 이브가 육신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었으나 순진한 상태에 머물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로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는 너무도 순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는 것도 교리상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례를 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한 필요한 상태를 이루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네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중 받아들일 만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방법인 것입니다.

1.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악과 죄가 존재하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율법도 주지 않으셨다

고 가정해 보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율법을 어기는 일(죄를 범하는 일)이 없으므로 악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형벌이나 이에 수반되는 재앙이 있을 수 없다면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선함, 축복, 기쁨 등도 없게 됩니다. 아무도 그러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율법(선택의 기회)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자유의지(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한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요에 못이겨 일을 한다면 향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하여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4.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따르신 방법입니다. 그는 죄와 악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아담과 이브를 순진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담과 이브에게 율법(선택의 기회)을 주었으며, 또한 자유의지(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순수하였던 상태에서 범한 범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이전부터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타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하여 범한 율법에 대해서는 공의의 법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은 구세주를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계 13 : 8)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이전에 구속을 이루기로 동의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벧전 1 : 19-20, 었

1 : 4, 모세 5 : 57, 교성 121-32 모 18 : 13, 었 3 : 14)

질문의 두 번째 요지는 “왜 주님께서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번성하라고 명한 계명을 지킬 길을 예비시키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과 이후의 상태에 관해서 추가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그들의 범법에 대하여 구속하시며 그들이 회개한다는 조건 아래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죄까지도 구속하신다는 말씀을 배운 후 서로 주고 받은 이야기를 예언자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 날에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성신으로 충만하여졌고 세상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가로되 주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 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니, “그 아내 이브는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모세서 5 : 10-11) 〇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교회 공과 과정 협의
책임자

성구를 찾아서

왜 음악이 예배에 중요한가?

로버트 제이 매튜
브리감 영 대학
고대 경전 조교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시 98 : 4) 음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차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영혼의 감정과 느낌을 구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경전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성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있다. 솔로몬 시대에 신전을 헌납하면서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와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든...것이라. 제사장들이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역하 7 : 8 역하 5 : 12-13참조)

또 경전은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역상 25 : 6)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에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나는 제금과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라고 말하였다(시 150 : 3-5)

시편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시편 98 : 1, 4)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시편 105 : 2)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느 12 : 46-47)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역대하 29 : 30)

예언자 엘마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라”고 격려했다. (엘 5 : 26. 엘 26 : 13 참조) 또한 우리는 성도들이 “나아와 어린 양의 우편에 서리니, 그때에 어린 양이 시온 산위...에 서실 것이요, 성도들이...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리라”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 (교성 133 : 56)

신약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저희가 보좌…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제14: 1, 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자 주님께서는 엠마 스미스에게 “나의 교회에서 사용할 거룩한 찬송가의 선정을 네게 맡기노라.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교성 25·11-12) 이스라엘의 진영에게 주님께서는 예언자 브리감 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즐거우면 노래와 음악과 춤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교성 136: 28)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성구는 많이 있으나, 모든 음악이 다 예배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중한 선택이 고려된다. 레이먼, 레뮤엘,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농탕치기 시작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무례한 얘기를 지껄”였다. (니일 18: 9) 구약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인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네 노래 소리”와 “네 비파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다. (암 5·23. 암 6: 1-6, 8-3 참조)

음악은 듣는 이의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고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사울 왕이 낙심하여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죽 사울이 상쾌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상 16: 23)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한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사 16: 26) 또한 대양을 건너는 야렛인은 밤낮으로 “주를 찬양하여 노래하였다.”(이 6: 9)

그러나 포로가 된 유대인은 그들을 잡은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

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 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의 노래를 부를꼬”(시 137: 1-4)

음악은 복음을 가르치는 수단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 16)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 19)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헌납할 때의 음악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였다. 또한 예수와 십이사도가 최후의 만찬을 든 후에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 (막 14: 26) 모로나이도 역시 교회 모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성신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혹 가르치고…혹 찬송하게 하였고 또한 그대로 행하여졌느니라.”(모로 6: 9)

시온의 구속의 노래에 대하여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들을찌어다 너희 파숫군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높여 일제히 노래하니라…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찌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음이라”(사 52: 8-9)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리이다”(사 51: 3, 11)

그날에 성도들은 “음성을 높여 한 목소리로 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주께서 또 다시 시온을 일으키셨도다. 주께서…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으니”(교리와 성약 84: 98-99) ㉔

눈물은 결코 희망을 낳지 못한다

엘레인 캐논 씀

남편의 죽음은 개인의 슬픈 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별을 승화시키고, 이별의 아픔을 없애 주는 방법이 있다. 세월도 사별의 아픔을 무디게 해 준다. 그러나 궁극적인 재결합만이 이러한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영원한 결혼을 한 동반자는 언젠가 다시 결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결합의 희망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이겨 내는 데에 단지 위안 이상의 것이 된다. 이것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삶의 방향이요, 마음과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삶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여기에 고인이 되신 총관리 직원들의 미망인들이 어떻게 가지고 풍부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소개하였다.

네가 받은 복을 세어라

“나의 남편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온 세상이 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매튜 카울리 장로의 미망인 엘바 카울리 자매는 이렇게 그날을 회상하였다. “나는 자연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햇빛이 비치는 하늘까지도 흐리게 보였지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카울리 자매님은 이 긴 세월을 살아 오면서 얻은 체험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생활 속의 기쁨을 발견하게 해 주었죠.”

카울리 장로의 장례가 끝난 후 곧 엘바 자매는 그대로 슬픔에 빠져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직시하였다. 그녀에게는 돌보아야 할 양아들이 있었고, 무엇인가 해야 할 삶이 있었다. 그녀는 곧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의 행정직을 수락하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고통받는 자녀들의 부모들에게서 그들의 상심과 자녀와의 사별을 대하는 각양 각색의 태도를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에 접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교훈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절망에 빠져 버리기도 하지요. 언젠가는 한 젊은 어머니가 너무나 가엾게 된 기형아를 안고 내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 작은 영을 보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이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잘 돌보아 주리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카울리 자매님은 말을 이었다. “그날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너무나 많은 축복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흔히 사용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절대로 나 자신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울리가는 수집가였다. 그들의 아파트에는 세계도처에서 가지고 온 흥미로운 물건들로 차여 있다. 그중에도 특히 카울리 장로가 수집한 왕실 주전자와 뉴질랜드 봉직시 수집했던 마우리 문화에서 나온 진귀한 물건은 놀랄 만큼 훌륭하다. 이러한 수집된 물건을 하나 하나 바라보면 그것을 얻게 된 상황과 장소 등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성도를 방문했던 때를 카울리 자매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한다.

“처음에는 이 물건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위안이 되었지요. 이것들은 일기 같아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스럽고 특별한 경험의 기록이지요. 회상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혼자 있는 것이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랍니다.”

자그마하고 아름답고 젊어 보이는 카울리 자매는 바빠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신전에서 일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보석상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면 바쁜 생은 우리를 다시 꼭대기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하였다.

매튜 카울리 자매



신앙의 시련을 맞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의 미망인 앨리스 손리 이반스 자매는 아주 낡은 삼권합본(물문경,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을 한 권에 수록하고 있는 합본)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더서 12장 6절을 읽어 드리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하던 남편을 잃는 것은 신앙의 시련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기대야 할 것은 신앙이지요. 우리는 네 아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나의 간증을 들려 주었지요. 그때 갑자기 남편 리차드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로 질서를 찾기 어려운 때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은 리차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반스 자매의 가정에는 따스한 분위기가 넘쳐 있었다. 집은 책과 음악과 맛있는 음식의 향내로 가득 차 있었다. 자매의 친구들이 줄곧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주었고 손자 손녀와 일에 바쁜 아들은 식사를 하러 또는 방문하러 찾아 오곤 하였다. 큰 슬픔 중에도 이 가정에는 위로받기 원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사랑과 신앙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리차드 엘 이반스는 비단 교회에서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앨리스”는 이반스 장로의 중요한 과제를 내포해 주기 위하여 장래가 기약된 바이올린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였다. 이제 그녀의 일은 남편의 개인 서류철이 들은 90개의 큰 상자를 처리하는 일이다. 출판사와 레코드사에서는 만기일

성도의 벗 1974년 3월호

까지 내야 한다고 독촉한다. 가슴은 아프고 슬퍼도 일은 해내야 한다.

“일은 축복입니다.” 이반스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경전에서 말하듯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란 죽은 것’이죠.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저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자 나의 생활 방식은 변했습니다. 나는 지난 일들을 정리했지요.”

총관리 역원과 아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은 세계를 자기의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는 직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앨리스 이반스 자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과부와 미혼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을 함께 나누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사람의 범주를 생각할 때, 결혼하지 못한 여인이 느꼈던 외로움은 지금 내가 겪는 이 외로움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반스 자매는 말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자매

성
도의
벗

1974년 3월호

열심히 참여함

“우리가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며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우리가 용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신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이 인용구는 줄 존슨의 것인데 내 달력에 써 놓았죠.” 마들레인 비 워스린 자매는 말한다. “혼자 있게 되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느껴 집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자극이 되었죠. 나는 오늘 지금까지 보다 더욱 많이 배우고 성품을 더욱 기르고 더욱 훌륭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어요. 워스린 감독은 나를 위한 곳을 예비하고 있을 것을 압니다. 나도 그곳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전 관리 감독이셨던 조셉 엘 워스린 감독의 미망인이다. 그들 사이에는 5자녀가 있었고 27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그들 중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신전에 갔었고 자녀들 모두 선교 사업을 마쳤고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가족을 돌보면서 복음 원리로부터 빛나갈 수 없으며, 사별과 외로움의 시련을 만나게 되어서도 빛나갈 수 없습니다.” 워스린 자매는 말한다.

활기에 차 있고 정정한 이 여인은 올해 이스라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녀는 이 이별의 시험으로부터 아무 것도 회복되지 않으므로 인간은 적응해야 하고 따라서 인간은 아름답게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믿는다. 그녀는 지금도 지난 날처럼 분주하며 많은 훌륭한 대업에 참여하여 힘써 노력하고 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찾도록 권고하고 있죠. 남편과 다시 만날 것을 바라고 있어요. 나는 그이가 첫번 선교 사업을 마칠 동안 그이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이가 온 몸을 바쳐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수년 동안에도

그이를 기다렸어요. 앞으로 좀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난 그이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으나 울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생활한다면 현재와 내세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어요.

“나는 나의 남편이 주님의 부름과 권고에 따라 헌신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어요. 나는 항상 그이를 도와 드렸답니다. 지금도 내가 힘써 자기 향상을 도모하고, 친구들과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와 주며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대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써 일하는 동안 틀림 없이 나를 도와 주고 계실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죽음 그 자체는 일시적이고 마지막인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음 저편을 내다 보면 우리는 만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게 되죠.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보시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조셉 엘 워드린 자매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녀의 남편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오스카 에이 커크햄 장로가 사망한 지 3개월 후 아이다 머독 커크햄 자매가 준비하여 출판한 책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라”이다. 이 책명은 그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

“실망에 빠져 있든지 미망인이 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커크햄 자매는 설명한다. 그녀의 남편은 13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전이나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전통을 남편과 더불어 간직하여 왔다. 특별한 성구를 작은 카드에 적어 끈경에 빠진 친구에게 이 카드를 보내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기쁜 소식을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소망을 존중한 용기있는 위대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딸 그레이스 버빗지의 도움으로 커크햄 장로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책을 내는데 필요한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커크햄 자매에 의하면 우리가 행복을 더 많이 느낄 때까지 아니면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햇볕을 퍼지게 하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어떤 것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 그녀가 몹시 앓고 있는 동안 “물 위에 던져진 식물”(전 11:1 참조)이 도로 찾아 왔다. 즉 꽃, 카드, 수많은 친구들이 다시 찾아 주었던 것이다.

일생을 함께 지내는 동안 커크햄 장로 부부는 둘 다 분주하였는데 남편은 사랑을 받는 선교사와 소년단 지도자로서, 아내는 유타 개척자의 딸을 중심으로 한 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아직도 이 협회의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같이 봉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공동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유대를 더욱 굳게 결속시켜 주었다.

커크햄 장로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가족이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커크햄 자매는 성구 카드를 준비하였고 커크햄 장로는 가족 기도로 가족을 인도하고 가장의 축복을 주었다. 이 성스러운 추억은 다음과 같이 적힌 성구에 의해 잊혀지지 않고 있다.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오스카 에이 커크햄 자매

자신의 계보를 조사하라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계보를 조사하면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마가렛 웰스 자매는 이렇게 가르친다. “나는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 다 계보 조사를 함으로써 알게 되었죠. 그 중에는 내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1941년에 남편과 사별한 그녀는 남편인 관리 감독단의 존 웰스 감독이 사망한 이듬해에 신전 직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 유타주로 온 나의 선조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훌륭한 경험이에요 호뭇한 만족감을 안겨 주는 일이지요.” 그녀는 자로로 가득 차 있



스 자매

는 철 실험 네 개와 매우 아름답게 작성된 가족 역사 아홉 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작성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거의 백 살이 되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로하신 어머니가 7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답니다.

외로울 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자신이 어떤 것을 바라거나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앞날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웰스 자매는 말하는데 그녀가 좋아하는 취미는 꽃을 특별히 쪼이게 하는 일이다. 이는 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그녀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모든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27년간 청년 상향회 본부 임원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선교 사업을 마친 웰스 자매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무 쪽에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사는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삶이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들려 주곤 했다.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해 사랑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당신이 매일 아침

성도의 빛 1974년 3월호

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이요.” 그녀는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기록된 것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믿고 있다.

이따금 특별한 날은 미망인에게 가장 괴로운 날이 되기도 한다. 생일이 잊혀진나든가 성탄절 선물이 없으면 강한 용기도 허물어질 수 있다. 웰스 자매는 이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생일이 되든가 성탄절이 되면 언제나 나는 스스로 남편이 내게 주는 멋진 선물을 사죠. 나는 남편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신전 직원을 그만 둔 이래 웰스 자매는 와드 및 스테이크 계보 프로그램을 위해 봉사해 왔다. 그녀는 부부나 가족으로 하여금 기록서를 완성하게 도와 주어 그들을 동반하여 신전에 감으로써 추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약간 늦장을 부리면 그녀는 “준비되는 대로 내게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그들을 달랜다.

가장 귀한 유대의 끈이 죽음에 의해 끊어질 때 사람은 장엄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신앙을 가진 여인을 위해서는 눈물이 흐를 때 어찌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복음은 참된 것이다. 우리가 소망과 대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복음 속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는 사람의 눈은 결코 그 것을 볼 수 없다.

캐는 자매, “랜다 델타 시그마”라는 교회 여대생 사교 클럽 교문, 과거에 “뉴 이라”부 편집인을 역임했음.



조지 에프 리차즈 자매

하나님과 가까이 함

“남편은 항상 만일 내가 특정한 성구에 따라 생활하려고 한다면 만사가 항상 내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성구는 바로 교리와 성약 88편 67절이었읍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 성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어두움도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없어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프 리차즈 장로(살아 있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의 부친)의 미망인인 베스티 에이치 리차즈 자매는 매우 건강하지 않으나 온갖 종류의 양서를 읽기 좋아하지만 주로 복음에 관한 서적을 읽음으로써 자기 영혼을 살찌우고 있다.

1950년 리차즈 장로가 사망한 이래 홀몸이 된 그녀는 남편의 가족의 방문을 받고 기뻐하며 그들이 자기에게

보여 주는 호의에 감사하고 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해 만나는 남편과 아내를 이별하게 하는 계획에서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가치있는 교훈을 배우는 기회로 귀중히 여기고 있다. 그녀는 종종 신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미망인을 위해 행하여지는 성스러운 의식은 참으로 위안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만일 어떤 여인이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남편의 사망으로 홀몸이 되어 있다면 복음을 공부해야 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리차드 자매는 상냥한 요오크 샤이어(영국에 있는 지역 이름) 어조로 말한다.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에 내포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기도드리기 전에 경전을 펼 때에는 나의 영은 들림을 받는답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정복할 수 있어요.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될

“미망인이 갖는 괴로운 번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당신에게 그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안나 마리 크리츠로우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 제이 크리츠로우 이세는 1968년 사망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였었다.

크리츠로우 장로 부부가 44년간 쌓아 온 관계는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소설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들 부부는 자매가 17세의 소녀로 벌써 스테이크 계보 전문가로 봉사하였을 때 주일학교가 주최한 소풍에서 처음으로 만난 날부터 애인으로 지내 왔었다.

이들 부부는 서로 벗이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였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 둘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것은 크리츠로우 자매가 지금도 그리워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의 주위에 둘러 모인 세 자녀와 여러 명의 손자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과 기쁨을 안겨 준다.

크리츠로우 자매는 침착하고 여왕다운 기품을 보여 주는 여성이다. 그녀의 온화함과 세련된 몸가짐은 신권의 은사에 대해 감사하는 그녀의 태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생 동안 나는 신권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홀몸이 되어 있으니 신권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병자를 축복하는 신권 의식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를 바랄 때 그 도움을 찾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외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나는 아홉 살 때 내가 척추 뇌막염을 앓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의사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이 중병에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결코 걸지 못하든지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보



윌리엄 제이 크리츠로우 2세 자매



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신권의 능력이 명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고 의사가 나에게 대해 예측했던 문제는 말끔히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항상 필요한 때에는 신권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좀처럼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빼먹거나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브리검 영 대학교 주최의 영적인 모임을 시청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항상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주일학교에 참석하는데 그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자신에 대해 슬프게 느끼는 충동을 받으면 나는 할머니를 생각하곤 하죠. 할머니는 마흔 두 살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열한 명을 거느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나 보험금이 전연 없이 파부가 되었답니다.” 크리츠로우 자매는 이같이 회상하며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특히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는 위로는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圖



동 타이와 용

페이스 잉링 닐 지음
진저 브라운 그림

“청룡제 행렬에서 제가 용 꼬리가 될 거예요.” 동 타이는 할머니에게 자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내 친구 밍키처럼 나도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고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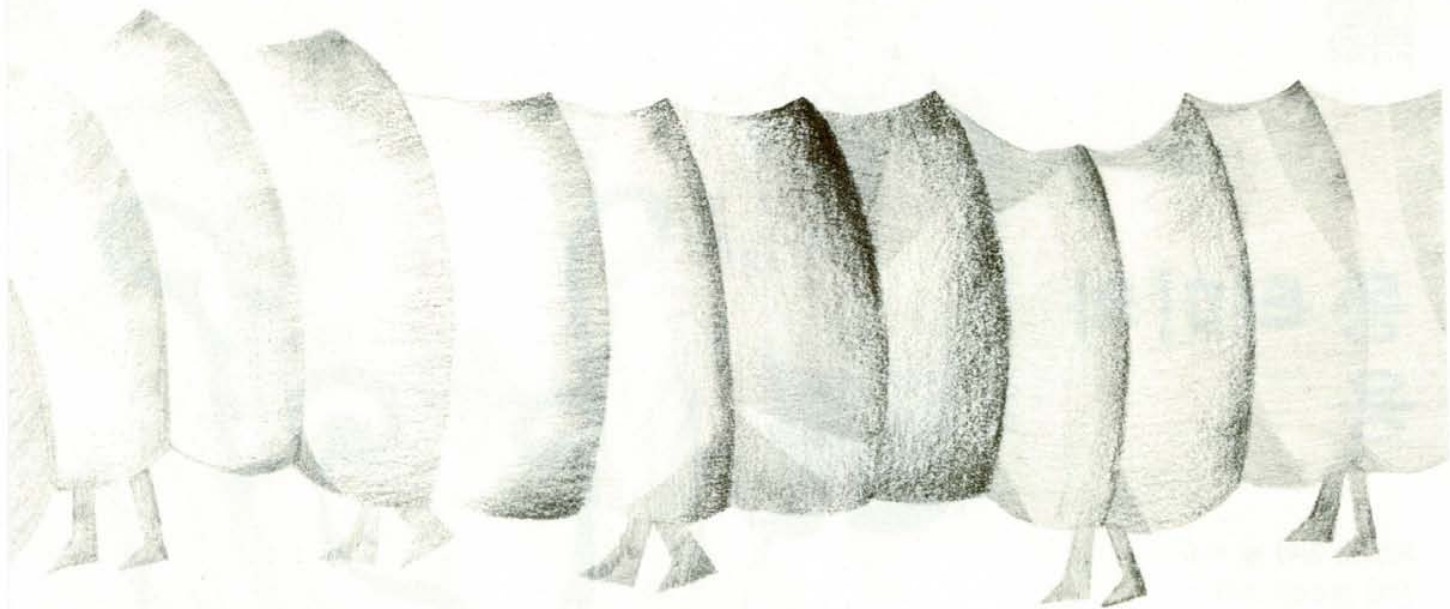
동 타이와 그의 가족은 시골에서 홍콩의 쿠와룬으로 이사해 왔다.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나 도시로 자꾸만 모여드는 중국인 어린이를 수용할 만큼 학교가 충분치 못했다. 그래서 동 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할머니는 국에 넣을 긴 콩을 자르고 계셨다. “멋진 용 꼬리가 되려으나 다른 사람과 발을 잘 맞춰야 하느니라.”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때 밍키가 복도로 길게 뻗어 있는 윗현관을 따라 뛰어 왔다.

“웬 일이냐?” 할머니가 물으셨다. “친척들이 오늘 아침에 기차로 광둥에서 오셨대요!” 밍키는





헐레벌떡거리며 말을 이었다. “정거장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랑 애기랑 할머니랑요.”

동 타이의 얼굴이 수그러졌다. “청룡제라 오늘은 바쁘단 말야.” 동 타이는 시무룩하게 말했다. “오늘 밤까지만 기다려도 되잖아.”

“내가 나가서 동생네 식구를 만나겠다.” 할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키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할머니!” 동 타이는 소리를 질렀다. “정거장까지 십리나 되는 데 어떻게 혼자 가세요? 게다가 시내에는 다른 때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에게 밟힐 거예요!”

동 타이는 밍키에게 화를 내었다. “네가 용 꼬리가 되고 싶어서 나를 멀리 가게 하려는 거지? 우리 친척이 울 리가 없는데.”

밍키의 검은 눈은 놀라움에 둥그래졌다. “진짜야.” 그는 대답했다. “인력거 끄는 우리 아저씨가 봤대. 식당 요리사 친구한테 얘기하던걸. 그리고…”

동 타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길게 한숨을 내리쉬며 말했다. “웃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이 집에서 가장이야. 그러니 내가 정거장에 가야지. 너 밍키는 내 대신 용 꼬리가 되려므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용 모양의 은 팔찌를 낀 팔을 들어 보이었다. “내 동생은 이런 가족 팔찌를 끼고 있을 게다.”

동 타이는 골목골목 마다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찬 시가로 나섰다. 어느 때 보다 두 배로 사람들을 실은 버스, 택시, 인력거, 수레 등이 다니고 있었다.

행렬이 꼬리를 물고 시가 중심지로 내려오자 동 타이는 춤추며 내려 오는 용을 보았다. 용의 다리는 아름다운 용의 몸 밑에 들어가 있는 남자들과 소년들의 발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작은 소년이 쓰고 가는 용 꼬리를 보았을 때 동 타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용 꼬리가 되어 보기를 얼마나 원했었던가!

동 타이는 청룡 이야기 생각이

났다. 이천년 전에 홍수와 불이 산기슭에 있는 어느 작은 중국 마을을 휩쓸었다. 단 한 사람만이 가족을 산 꼭대기로 피신시켜 살아 남게 되었다. 그 후로 이 재난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사람들은 산위에 올라가 다음 해는 행운이 깃들기를 빌게 되었다.

항구에 가까이 오자 동 타이는 따스한 소금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섬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부둣가에 몰려들고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행운이 깃든 빅토리아 공원 언덕 위로 줄지어 올라 가려는 것이었다. 사람을 가득 실은 페리는 앞뒤로 마구 흔들렸다. 조그만 삼판(보트)도 사람들을 싣고 건너갔다. 왈라왈라(모터보트)도 부산히 들락거렸다.

동 타이는 정거장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일단 정거장 안에 들어서자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콩나물 시루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한 가족을 찾을 수 있겠는가?



동 타이는 그만 그곳을 떠나려고 할 바로 그 때 그들이 눈에 띄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구석에 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기가 할머니의 것과 같은 팔찌를 찬 노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동 타이는 그들에게 다가 가서 허리를 구부려 인사드렸다. 동 타이는 그가 잘하는 광동말로 말했다.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네 식구를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이모 할머니는 할머니만큼이나 노쇠하였다. 한참을 걸어 오다가 동 타이는 할머니가 더 이상 못걸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를 위해서 잠시 쉴 곳을 찾고 싶었다. 마침내 그들은 학교까지 왔다.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학교는 텅 비었으나 동 타이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윌슨 선생이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들어 오세요.” 그는 말했다. “쉬십시오.”라고 말하고는 동 타이에게 말을 건넸다. “너 밍키 친구 아니냐? 왜 오늘 용 꼬리를

안했니?”

피곤한 여행자들이 쉬고 있는 동안 동 타이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용 꼬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축제 일을 즐기기 위하여 작은 동산에 까지도 올라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쏟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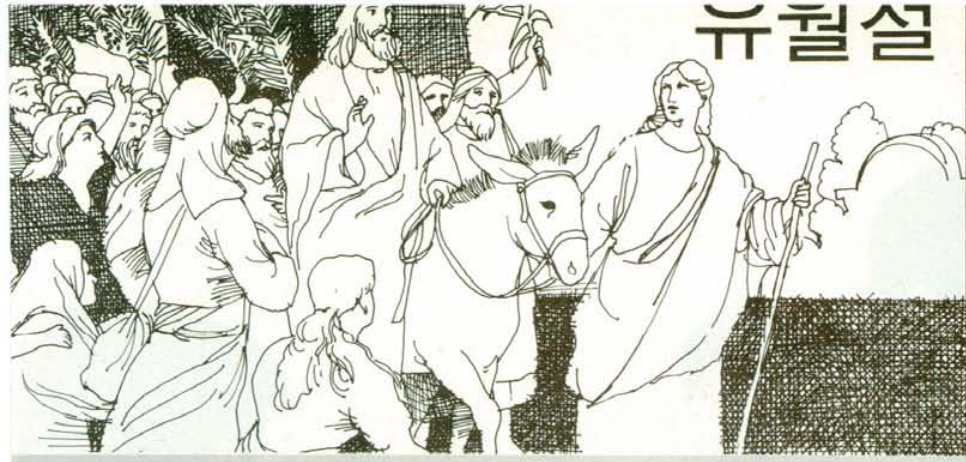
윌슨 선생은 웃으면서 조용하게 말하였다. “동 타이야, 그러니까 너의 친척 때문에 용 꼬리가 될 기회를 포기했던 말이지. 너야말로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하는 착한 소년이구나. 내가 어찌해서라도 너를 밍키의 반에 넣어 주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용하게 말하는 동 타이의 눈은 생각에 잠겨 반짝거렸다. “친척을 집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타이 모 산 산에 올라갈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집을 향하여 가면서 동 타이는 기쁘게 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갔다. “내일은 나도 학교에 간다. 새해에는 용 꼬리가 될거야!”



유월절



많은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를 맞기 위하여 나왔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 (요한복음 12 : 13 참조)

2. 축제의 첫째 날에 예수께서 십이사도들과 탁에 자리를 같이하셨다. 그는 떡을 축복하시고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6.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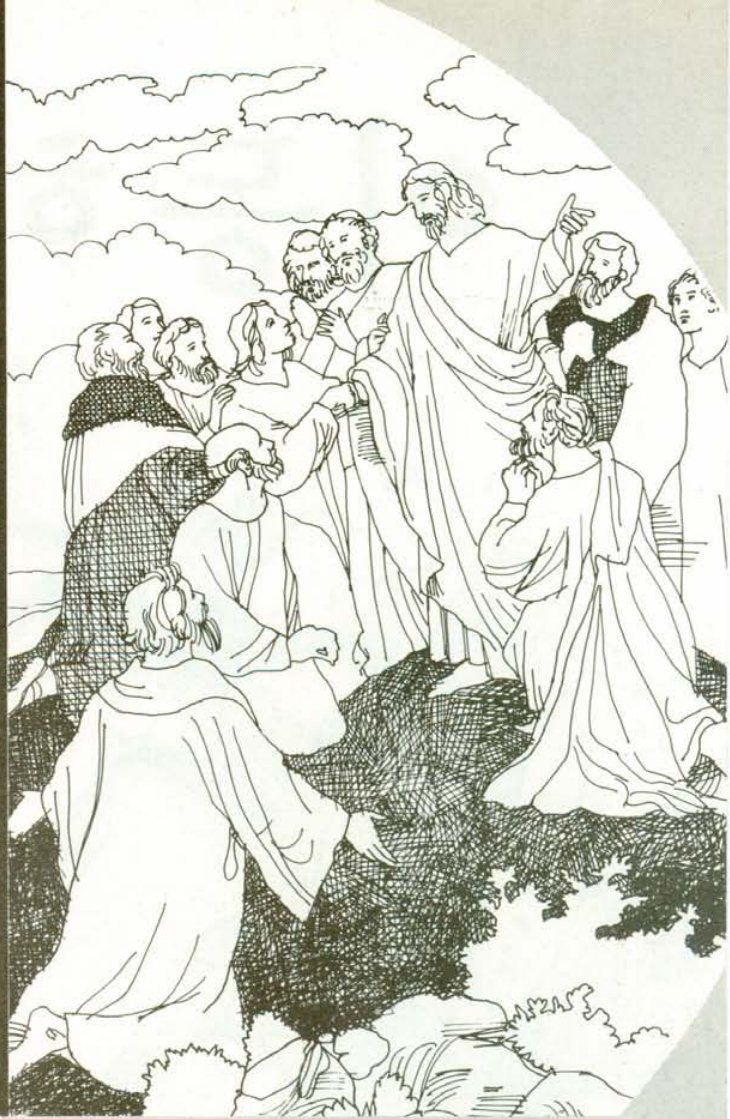


8. 예수께서 세번째로 기도하러 가셨다. 심혈을 기울여 기도한 지라 피와 같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을 주었다.

예수께서 돌아 오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고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을 깨우시고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3. 다시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 : 24 누가복음 22 : 20)



4. 그들이 이를 취하고 찬송가를 부른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 갔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5.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겿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구세주께서는 혼자 가서 기도할 동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9. 예수께서 돌아 와 보니 사도들이 또 잠이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마태복음 26 : 45)



10.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동안 십이사도의 한 사람인 유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선생이시여”라고 말하여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갔다. (마태복음 21-26, 마가복음 1-14, 누가복음 19-22, 요한복음 12-1)

이동하는 씨앗

폐기 가이젤 글, 그림

생
물
학

1974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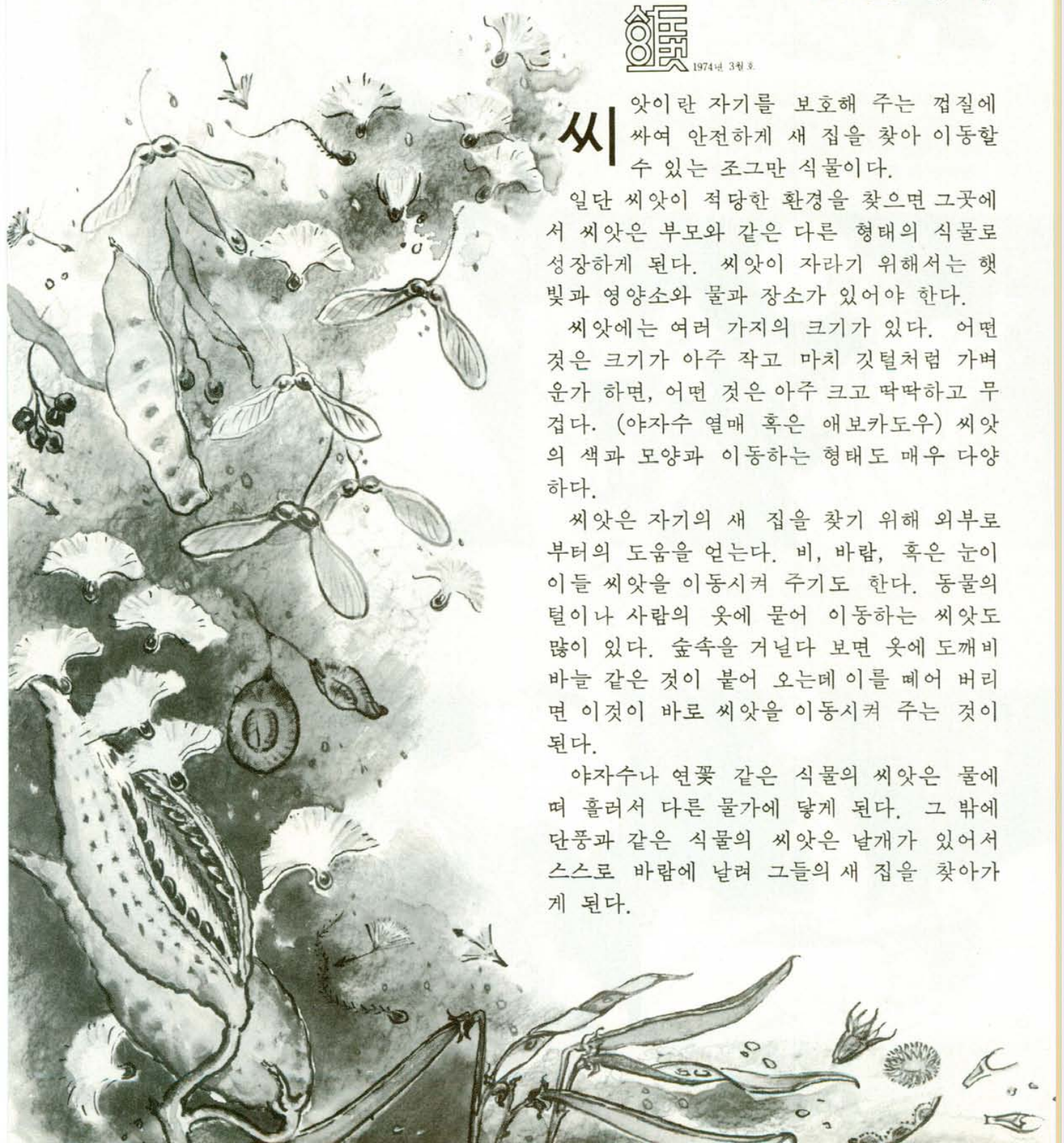
씨앗이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껍질에 싸여 안전하게 새 집을 찾아 이동할 수 있는 조그만 식물이다.


일단 씨앗이 적당한 환경을 찾으면 그곳에서 씨앗은 부모와 같은 다른 형태의 식물로 성장하게 된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영양소와 물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

씨앗에는 여러 가지의 크기가 있다. 어떤 것은 크기가 아주 작고 마치 깃털처럼 가벼운가 하면, 어떤 것은 아주 크고 딱딱하고 무겁다. (야자수 열매 혹은 애보카도우) 씨앗의 색과 모양과 이동하는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씨앗은 자기의 새 집을 찾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얻는다. 비, 바람, 혹은 눈이 이들 씨앗을 이동시켜 주기도 한다.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묻어 이동하는 씨앗도 많이 있다. 숲속을 거닐다 보면 옷에 도깨비바늘 같은 것이 붙어 오는데 이를 떼어 버리면 이것이 바로 씨앗을 이동시켜 주는 것이 된다.

야자수나 연꽃 같은 식물의 씨앗은 물에 떠 흘러서 다른 물가에 닿게 된다. 그 밖에 단풍과 같은 식물의 씨앗은 날개가 있어서 스스로 바람에 날려 그들의 새 집을 찾아가게 된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 속에 묻어 줌으로써 참나무의 씨앗의 이동 방식을 돕는다. 새들은 먹이로 삼기 위하여 과일을 먹으면서 씨를 사방으로 뿌린다. 민들레나 옥첩매와 같은 풍산종자는 사뿐이 훑날리다가 땅에 내려앉는다.

어떤 씨앗은 공중에 훑날리며 또 어떤 씨앗은 톱이나 가시 같은 것이 있어 다른 것에 붙어 이동한다.

수많은 씨앗이 매년 저마다의 독특한 수많은 방법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스스로 이동하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매년 농부나 정원사가 거두어 들였다가 적당한 장소에 심어 가꾸는 씨앗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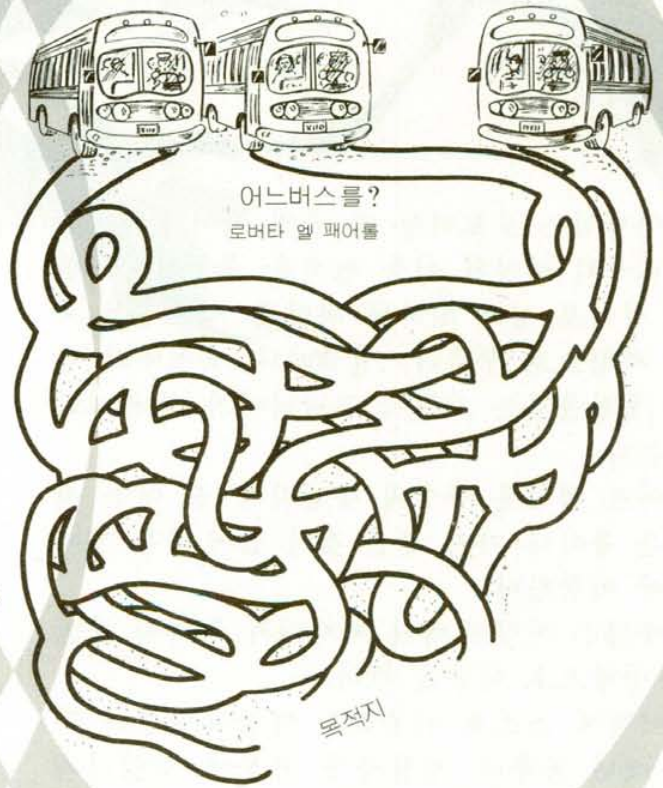
오직 운이 좋은 씨앗만이 오래 살아서 성장하게 된다. 많은 씨앗이 잘못된 장소를 잡아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물에 빠져버리기도 하며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 말라 죽거나 같은 씨앗이 너무 많이 몰려서 죽기도 한다.

자연은 이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의 씨앗을 공급한다. 끝까지 살아 남아 성공적으로 이동을 하고 새로운 식물로 자라는 씨앗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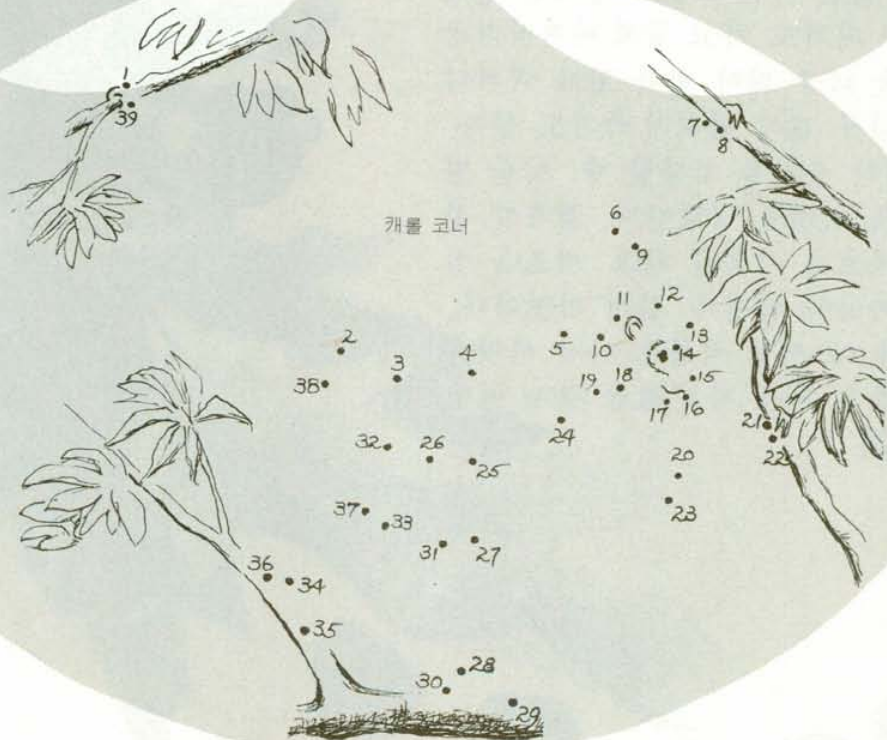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다 자란 식물은 다시 씨앗을 맺고 이 씨앗들은 다시 자기 집을 찾아 여행을 하게 된다. 䄒



심심풀이



1974년 3월호



고요한 북대서양의 밤이었다. 데이비드 브라운 선장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이다. 그 배의 선원 즉 여러 항해사와 자기까지도 모두 침례를 받고 물몬이 되는 꿈이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깜박 잠이 든 사이에 하필이면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선장은 일어나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이 이상한 꿈과 함께 배에 탄 물몬들의 놀랄 만한 신앙의 정신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이민 길에 오른 425명의 물몬과 그 밖의 침례를 받지 않은 이들의 친지와 친척, 그리고 26명의 선원을 태우고 있는 이 배는 1853년 2월 25일 영국의 리버풀을 떠나 머시강을 통해 북대서양으로 항하여 출발하였다. 바람이 잦아지기를 기다려 배를 머시에 정박시키고 있는 동안 비와 우박이 심하게 내리고 있었다. 갑판 아래에서 이 물몬 이민 단체의 단장인 56세의 크리스토퍼 아더 형제는 승선한 선객들을 여덟 와드로 나누고, 각 와드에 그 와드를 책임지는 관리 장로와 이를 보좌하는 제사나 교사를 한 명씩 두었다. 이들을 분류해 보면 성인이 309명 어린이가 100명 그리고 유아가 9명이었다.

3일 후에 아직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으며 폭풍으로 난파된 배가 눈에 띄고 선객은 모두 배멀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운 선장은 아일랜드 해협을 통과해서 5000마일의 항해의 뜻을 울리기로 결심하였다. 성도들은 5주 혹은 6주 후에는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도착하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 앞으로의 길고 험난한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그들은 9월까지의 유타에 도착해야 했다.

바다 위에서 맞는 첫번 안식일에는 물몬들이 세 번의 집회를 가졌으며 여기에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객이 참석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성찬식에는 브라운 선장과 항해사들과 그 밖의 대부분의 선원들이 참석했다. 믿음에 있어 뜻이 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장은 여행 초부터 이 이민단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주말이 되자 북대서양의 맹렬한 폭풍은 이 목선을 삼킬 듯이 위협하였다.

이 배에 탔던 한 사람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월 10일, 5시간 동안 동풍이 강하게 불었다. 배가 심하게 움직인다. 배의 양편에서 물이 닥치는 파도는 산맥과 같다. 좌현에 묶어 둔 짐들은 끈을 끊고 객실의 한가운데로 굴러 나온다.”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자 신권 소유자들은 갑판 아래에 모여 파도를 잠재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브라운 선장은 일기가 갑자기 순조로워졌다고 갑판 아래로 내려와 알려 주었다. 갑판의 뚜껑을 다시 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인터내셔널호는 더욱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덩굴었고 냄비와 깡통은 으깨지고 쭈그러들었으며 많은 물건을 잃게 되었다”라고 어느 사람은 기록하였다. 상황은 지난 밤보다 훨씬 위험했다. 음식을 짓기 위해 불을 지필 수가 없었으며 여자와 어린이들은 침대를 떠

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풍랑은 거의 15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바람이 멎어 갑판의 뚜껑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선장의 이상한 꿈은 그같은 심한 풍랑 끝에 다시 일기가 순조로워져서 배가 안전하게 된 것을 보고는 기뻐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사이에 나타난 것이었다.

항해는 계속되었다. 처음의 그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은 훌륭한 품성을 잃지 않았으며 특히 밤마다 가지는 집회와 안식일 집회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품성이 더욱 여실히 보였다. 방언과 예언이 빈번히 있었다. 항해를 시작한 지 4주 후에 관리 장로들은 그들의 와드에서 “모두 화복하고 병든 자가 없고 다투는 자도 없으며 어떠한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항해는 순조롭지 못하여 맞바람 때문에 하루에 80마일을 더 가지 못하였다. 3월 27일 부활절에 물몬들은 오후까지 금식하며 그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잔잔한 바람과 바다를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브라운 선장도 마찬가지로 항해를 위협하는 일기로 걱정에 싸였다. 4주일이 지났는데도 뉴올리언즈까지 겨우 3분지 1밖에 오지 못했다. 아직도 목적지까지는 2,900마일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선장은 식량 재고 조사를 명했으며 그 결과 일기만 순조로우면 식량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민단이 걱정에 싸여 있을 때 성령은 3월 29일에 선객을 확신시켜 주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의 금식한 일

인터내셔널호 의 항해

글 윌리엄 지 하틀리
그림 하워드 포스트



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항해의 속도를 더욱 빨리 해 주실 것이라고 방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 풀이하였다.”

그러나 그 후 며칠간에 일어난 일들은 그 예언을 부인하는 듯이 보였다. 폭풍이 다시 몰아쳤다. “거센 바람, 산더미 같은 파도, 배의 흔들림, 사람들의 떨기... 사방으로 굴러 다니는 물건들.” 절으로 보기에는 마치 전쟁과 같았으나 내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 “핀치 형제가 복음의 제일 원칙에 대해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한” 설교 모임이 있는 후 다섯 사람이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 4월 1일에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선원들이 많이 참석한 간증회에서 세 사람이 또 침례를 받게 되었으며 그 배의 목수는 선원으로는 최초로 침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식량 배급품이 많이 줄어 든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간증회에서 세 명의 선원과 한 명의 승객이 침례를 받았다.

항해중인 배 위에서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큰 통으로 바닷물을 길어서 사용하기도 했으며 배 옆에 임시로 발판을 붙여 침례를 주기도 했다. 그 배에서 침례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갑판 위에서 “2,000겔론 들이 둥근 통에 바닷물을 채우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다.” 왜 갑판 위에 그같이 우리가 겨우 상상만 할 수 있는 큰 통을 놓아 두었을까? 그 통은 바닷물로 채워 편리하게 침례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리버풀을 떠난 지 5주일이 지난 4월 첫 일요일에도 뉴올리언즈까지는 아직 반도 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날 갑판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배는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데도 많은 사람의 간증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이 나왔다. 그것은 순풍이 불도록 단장을 통하여 간구하자는 것이었다” 모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다. 그 당시 22세로 아직 비회원이었던 크리스토퍼 아더이세는 “바로 그때 기이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후에 그 순간을 술회하였다. “4월 3일에 우리는 순풍이 불 것을 기도로 간구하였는데 우리가 무릎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차례의 강풍이 있는 다음부터는 일기가 순조로와 배는 플로리다를 향해 순항할 수 있었다. 그후 3일 동안 성도들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쁨에 젖어 있었으며 그 사흘간의 항해 거리는 지난 2주일간의 항해 거리와 같았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이 배는 하루에 220마일을 기록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렇게 항해가 순조롭게 되는데다 회복된 교회가 세워진 4월 6일을 맞아 성도들의 기쁨은 한층 더했다. 아침에 성찬식이 있었고 네 쌍의 결혼식이 있었다. 오후의 축제 모임에는 “기도와 찬양”, 노래, 말씀, 시 암송, 악기 연주의 순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배에서 마련할 수 있는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한” 특별한 식사가 나왔다. 식사 후 저녁 늦게까지 노래와 무용과 시 낭독으로 즐겼다. 그날 이후 선장 선원 할 것 없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 우애와 기쁨을 증진하였다.

인터내셔널호가 목적지로 항해 가는 동안 물문의 수는 브라운 선장의 꿈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점점 늘어 갔다. 4월 6일의 축제 직전에 선장의 요리사가 침례를 받았다. 4월 8일에는 이민단의 단장인 아더 형제의 16세된 딸 매리앤과 한 흑인 선원이 침례를 받았다. 다음 날은 이등 항해사와 세 명의 선원과 크리스토퍼 아더 2세가 침례를 받았다. 일주일 후 배가 큐바와 플로리다 사이를 항해할 때에는 이등 항해사가 입교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 날은 세 선원과 이민 길에 오른 한 사람이 입교하였다. 4월 17일의 화씨 110도의 혹서에서도 성령을 역사





하였다. 성도들은 온종일 모임을 가졌으며 그날 저녁에 목수와 선장 요리사와 두 선원이 하나님 사업의 참됨을 간증하였다.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이 늘어 감에 따라 브라운 선장의 마음도 평상시와 같지 못했다. 4월 18일에 선장은 상륙 명령을 내리면서 물문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일면으로 표현했다. 그때를 기록한 한 사람의 일기를 소개한다. “그는 대양을 수없이 건넜다. 그러나 말일성도와 함께 있을 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 그는 자존심으로 해서 당장에 성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곧 교회에 가입하여 솔트레이크시로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선장의 말이 끝난 후에 두 승객이 또 칩레를 받았다. 다음날 저녁 간증회에서 여섯 명의 선원이 간증을 했으며 한 선원이 또 칩레를 받았다. 상륙 3일 전 새벽 4시 30분 어둠을 깨고 동녘에서부터 여명이 비치 오기 시작할 때 선장은 아더 이민단장으로부터 칩레를 받았다. 그날 저녁 선장과 다른 두 사람이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다. 인터내셔널호의 이같은 개종의 이야기는 선장과 목수가 장로로 성임되고, 일등 항해사와 이등 항해사가 제사가 되고, 요리사는 교사가 되면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 의식에서 선장과 목수와 몇 명의 선원이 간증을 하였으며 한 스웨덴인과 흑인이 승객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칩레를 받았다.

4월 23일 오후 5시에 인터내셔널호는 54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뉴올리언즈항에 닿을 내렸다. 아더 이민단장은 성도들과 선원들의 행동에 기뻐하였다. 그는 영국 선교부장 사무엘 더블류 리차즈 형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특별히 선장을 다음과 같이 높이 칭찬하였다.

“저는 리버풀에서 성도들과 함께 떠난 사람 중에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친절하였고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그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같이 많은 사람이 회원이 된 것을 볼 때 그 보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모범적인 행동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더 형제는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저는 배에 함께 탔던 사람 중에 세 사람 즉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배의 급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몹시 교활한 한 승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칩레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칩레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선장과 일등 항해사, 이등 항해사 그리고 18명의 선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새 회원의 대부분은 곧 바로 솔트레이크 제곡으로 가고자 합니다. ...목수와 여덟 명의 선원이 스웨덴인 독일인 그리고 네덜란드인입니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들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고국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칩레를 준 사람의 총 수는 48명입니다.”

6주일 전의 데이비드 브라운의 예언적인 꿈은 94% 정확한 것이었다.

출처: “리버풀에서 뉴올리언즈까지 인터내셔널호의 해상 일지”의 인쇄본은 교회 기록 보관소에 “인터내셔널: 해상 일지, 1853 2월 21일부터 1853년 10월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일지는 존 라이온 장로가 쓰고 당시의 이민단의 서기였던 조지 심즈가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은 초그만 일기로 그 배의 승객 목록이 기도 하다. 항해에 관한 아더 형제의 보고 내용은 컨트리뷰터 13(1892년 8월) 463-65페이지에 실려있다. 여행에 관한 내용은 유타주 역사 편찬 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크리스토퍼 아더 2세의 타자판 자서전에 나와 있다. 인터내셔널호의 이야기와 같은 영국에서부터 물문들이 이주하는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는 피 에이 엠 테일러 저 “서부로 향한 희망”(1965)과 구스티브 오 라슨 저 “왕국의 서곡”(1947)이 있다. ㉔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밀튼 알 헌터

철십일 제일 정원회 회장

레이 모델 일 그림



수년전 4월 말경의 어느날 오후에 멕시코의 우수마시나타 강변의 치아파스에 있는 아구아 아줄에서 나는 다른 세 사람과 통나무 배에서 내려 그리잘바 강변에 있는 치아파스 특스틀라로 향해 수백 마일을 날아가기 위해 소형 단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타주 스프링필드에서 온 어네스트 에이 스트롱 형제와, 뉴월드 고고학 재단 지배인 개리드 더블류로우 형제와, 윌리엄 에이 (빌) 테버니쉬 형제, 그리고 내가 그날 아침에 떠나 온 특스틀라에 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숲이 짙은 밀림의 하나를 건너고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밀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종사인 빌은 비행 고도를 높여 구름 위로 비행했습니다. 짙은 구름으로 땅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스틀라 공항의 전과는 우리가 탄 비행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특스틀라로 돌아가는 진로를 짐작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룩한 지 두세 시간이 지나자 흔히 열대 지방에서 그러듯이 갑자기 사방이 캄캄하여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은 나에게 지금 우리는 그리잘바강을 지났으며 특스틀라로부터 서쪽으로 진로를 잡아 산맥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으니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조종사 빌에게 비행기의 진로가 지금 잘못 되어 있으며 우리가 특스틀라의 남쪽에 있는 강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그리잘바강을 지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빌은 진로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악천후로 인하여 그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음산하고 불길한 느낌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음울함과 절망의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스트롱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면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의 진로를 곧 바꾸지 않으면 산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롱 형제도 그와 같은 예감이 강렬하게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뒷자석에 앉아 있는데 빌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헌터 형제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즉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가자.” 고 말했습니다.

빌은 비행기의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었습니다. 평화와 안도의 느낌이 가슴에 젖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무사하리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요. 아무 사고도 없이 특스틀라에 도착할 수 있을 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되지 않아 특스틀라에서 비치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이 우리의 착륙지를 알려 주는데 따라 우리가 탄 비행기는 좁고 먼지가 이는 활주로를 돌았습니다. 벌써 날은 아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하였습니다. 그곳에는 3, 4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이며 스트롱 형제의 아들인 버트도 그곳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무사히 돌아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버트에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행장에 몰려있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수마시나타강 위로 날고 있을 그 시간을 전후해서 세 명의 멕시코인이 쌍발 비행기를 타고 밀림과 산을 넘어 그 강으로 아침에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특스틀라 주민들이 나



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개리드 로우는 그 멕시코 비행기가 산을 들이받아 탑승객이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을 편지로 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생명을 전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의 인도와 우리의 생명을 전져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대 도시 제이라헤물라라고 추정된 장소를 점검해 보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니삼 8:8)

우리는 맥케이 대관장님이 주신 서류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 그 장소를 찾았으며 그 장소가 제이라헤물라와 같은 큰 도시의 터전이 되기에는 너무 좁다는 결론에 네 사람 모두가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더우기 제이라헤물라에는 농사를 지을 들이 있어야 하고 니파이인들의 가축이 풀을 뜯을 초원이 그 도시의 양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경을 보면 제이라헤물라는 고대 미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인 듯 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나는 밤새도록 몹시 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의 여행 동반자들은 왜 내가 아침을 들러 식당에 내려오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나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너무 몸이 피로와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서 조반을 들고 비행장으로 나가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알아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돌아와서 비행장과 투스틀라에 구름이 너무 끼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개에 묻혀 있으며 이제부터 우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행장도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안개에 묻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한 후에 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

했습니다. “병자 축복을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들은 처음에 “헌터 형제님, 형제님은 지금 그같은 상태로 비행기를 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병자 축복을 받을 것을 고집했으며 드디어 스트롱 형제님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의 아들 버트가 그 기름 부음을 인봉하고 병자 축복을 나에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조반을 들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완전히 몸이 완쾌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가지고 비행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구름이 걷히고 우리는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고고학 답사원으로부터 그 구름과 안개는 며칠이 지나서야 다시 걷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투스틀라를 떠나야 할 특별한 날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트롱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터 형제님, 우리가 겪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이 교회 잡지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헌터 형제님이 성령의 강한 영감으로 인도를 받은 것은 윌포드 우드렐 대관장님께서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마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것과 흡사합니다. 우드렐 대관장님께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마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강풍이 몰아쳐 와서 마차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있는 나무를 뽑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대관장님께서 성령의 인도에 따르지 않았던들 대관장님은 물론 그의 일행도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일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 일행이 겪어야 했던 그와 같은 위급한 때에 처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㉔

인간은 어떻게 하여 일생 동안 성신의 인도와 위안을 누릴 수 있는가.

성신의 끊임없는 노력

1974년 3월호

프랭크린 디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도 바로 이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는 가장 큰 차이의 하나는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포함하는 침례의식이며 우리는 성신의 끊임없는 능력을 믿는다고 답하셨습니다. (교회 정사 제 4권 42페이지 참조)

신앙개조 제1조와 제4조는 이 신앙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이시며, 보혜사요, 교사요, ...영의 값진 은사를 가지신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우리는 현대의 제사를 통해 “아버



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이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으리라”(교성 130 : 22)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가르친 바대로 신뢰를 간절하고 아름답게 설명한 것입니다.

유대의 한 지도자였던 니고메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 3 : 5)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백성 가운데 나가서 베드로라 하는 나의 옛

사도처럼 고하여 이르기를 회개하여 거룩한 제명에 좃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누구나 교회 장로의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라 하라”(교성 49 : 11, 13-14)는 훈계를 받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영적인 재생이라는 사실을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베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 : 6-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와 침수로써의 침례는 성신을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 : 19)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7)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몸을 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서는 “성신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며 지혜의

보고의 문을 열어 주고,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 자신을 자각하게 되며 그들이 존재하는 큰 목적을 알게 됩니다”(설교집 제1권 241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을 가장 유용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성신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신의 은사는 생의 목적과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크나큰 도움을 줍니다.

성신의 주요 기능의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보혜사이기도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를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이로 미루어 우리는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이시며, 보혜사요, 교사요, 지혜와 지식과 신앙과 분별력과 옳은 지시와 같은 영의 값진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성신의 축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 줍니다.

저는 미국 공군 사관학교의 한 생도가 말한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 생도는 사관학교의 과정을 이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매우 용기를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그는 한 물문 생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물문 생도로부터 사관학교에 많은 물문 생도들이 있으며 평일에는 아침 5시부터 종교 학습 시간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생도는 물문의 아침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모임에 참석하였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그 모임에 나갔으며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토론도 하게 되었으며 교리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간증을 얻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신을 받자 즉시 그의 마음과 이해력이 눈을 뜨고 그의 기억력이 새로워진 것을 느꼈으며 그 이후로는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훌륭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실망이 그에게서 사라졌으며 화평과 안도가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이는 귀하고 값진 성신에 대한 영감에 차고 인상깊은 간증이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성신의 인도하심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성신의 고요한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저의 가족과 저는 풍족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가족은 솔트레이크시에 살았는데 저는 수도 워싱턴에서 정부의 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결정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이 직책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한 후에 기쁜 마음이었지만 영감에 따르기 위해서

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저는 정부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기회를 받아들일지나 아니면 사업 길에 뛰어드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도 많았으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국 사업에 투신해 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



한 젊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랫층으로 내려가 보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구하고 불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다. 저는 영의 속삭임에 따를 용기를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기에 처해 고심하고 주님께 인도를 구하여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영의 증거는 우리가 살아 가는 생활 주변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회원들이 위험한 때를 만나 영의 경고하심을 들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입한 큰 축복에 대한 간증을 저에게 들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랫층으로 내려가 보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그 경고에 따라 아랫층으로 내려갔더니 부엌의 한쪽 벽이 화염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가족을 불러 깨우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불을 끄는데 다행히 소방사에서 도착하기 전에 불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때의 그 경고가 영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신이 베풀 수 있는 경고였다고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합당한 회원에게는 그들이 병중이거나 죽음에 임했을 때 성신이 보혜사가 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슬픔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위로와 화평을 주신 보혜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비행기 사고로 남편을 잃은 두 미망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미망인은 서로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비탄에 잠겨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것처럼 강한 용기와 힘을 저는 일찌기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여인은 영의 위로하심을 느꼈으며 그들의 남편을 미리 불러 가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또 그들은 남편이 교회와 가까이 하였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과 가족이 불행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나, 형제들에게 신권을 부여할 때나, 형제와 자매를 교회의 직책에 성임할 때, 그리고 병자를 축복할 때나, 회원과 비회원에게 저의

간증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와 그 밖의 다른 많은 경우에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 다시 말해서 영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저에게 “형제님은 성신의 영향을 받으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으로 그리고 육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고 대답했습니다.

성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예언자요 그를 통해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음을 여러분께 증언합니다. 성신은 또한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현대의 위대한 예언자요 그분은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의 맨 윗자리에 계신 분임을 수없이 알려 주었습니다. 주님과 또한 우리 각자 각자가 모든 면에서 그분을 지지할 것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 성신의 능력이 임하셨던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따라 살면 진실로 성신은 그 사람의 걸잡이가 되시며 그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당한 회원들이 성신의 끊임 없는 능력과 은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같은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회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143차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내가 읽는곳에 내마음이 있다



에스 딜워스 영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
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
의 의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일에 교회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지상의 그의 왕국의 축
복을 취할 수 있게 하셨으며 제가 성
실히 증거하여 지상에서의 제가 맡은
일을 완수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거
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
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껴 알고 있음
니다. 이는 주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무한히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온 가족과 친
척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과
친척에게, 그리고 세상의 온 인류에
게 손길을 뻗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
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을 알 도리
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장막을 뚫고
그분의 참 모습을 보고 안다는 것이
저의 큰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서는 거룩한 인간 즉 예언자에게 자
신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예언자가 보
고 들은 것을 기록해 둘 것을 명하셨
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펴들고 주님
에 관한 성구를 읽을 때 성신의 능력
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
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
을 읽는 것은 그분의 음성 듣는 것
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앞으로 있을 현대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
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
으로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읽어 줄 수
있으나[그의 하신 말씀에 주의하여 이
를 읽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
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
성, 18 : 34-36)

저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
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아무 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
워 알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3 참
조)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 위
대한 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셨으며(요한복음 1:14 참
조) 그가 바로 육으로 태어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지상
에 와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이 주신 구원과 승영의 원칙에 순종하
는지 알기 위해 영의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영들은
다음과 같은 명을 받았읍니다. “...우

리는 내려가자...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
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24-
25) 그리고 때가 이르자 주님께서는
인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읍
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진리로 믿
으면서 이 위대하신 분, 메시아의 지
상 생활을 읽었습니다. 그가 태어나
실 때 목자들은 수 많은 천사들의 찬
미 소리를 들었으며 동방으로부터 박
사들이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떠났읍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쪽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
지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찾으라
는 영감을 받았거나 주님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값진 선물을 전하라는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읽을 때
면 저는 온 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 있는 증
거는 전혀 없고 또 누구도 그를 알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요단강에
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
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보
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
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침례를
베풀 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마 3:7)라는 소리가 들려 왔을 때
침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주님의 생애를 더듬어 살펴볼 때,

사도가 되어 특별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세 어부와 함께 어린 양이 산에 오르신 사실의 중요성이 참으로 큰 것임을 느낍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고 그들의 눈이 열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그들은 요한처럼 그 엄숙한 증언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때 밝은 구름이 모이더니 저들을 덮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해 주는 많은 일들이, 그리고 그의 고통과 희생의 비극으로 나를 겸손케 하는 일들이 주님의 생애를 통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5)는 구름 속에서 들려 오는 엄숙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전을 읽는 동안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해 주는 많은 일들이, 그리고 고통과 희생의 비극으로 나를 겸손케 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생애를 통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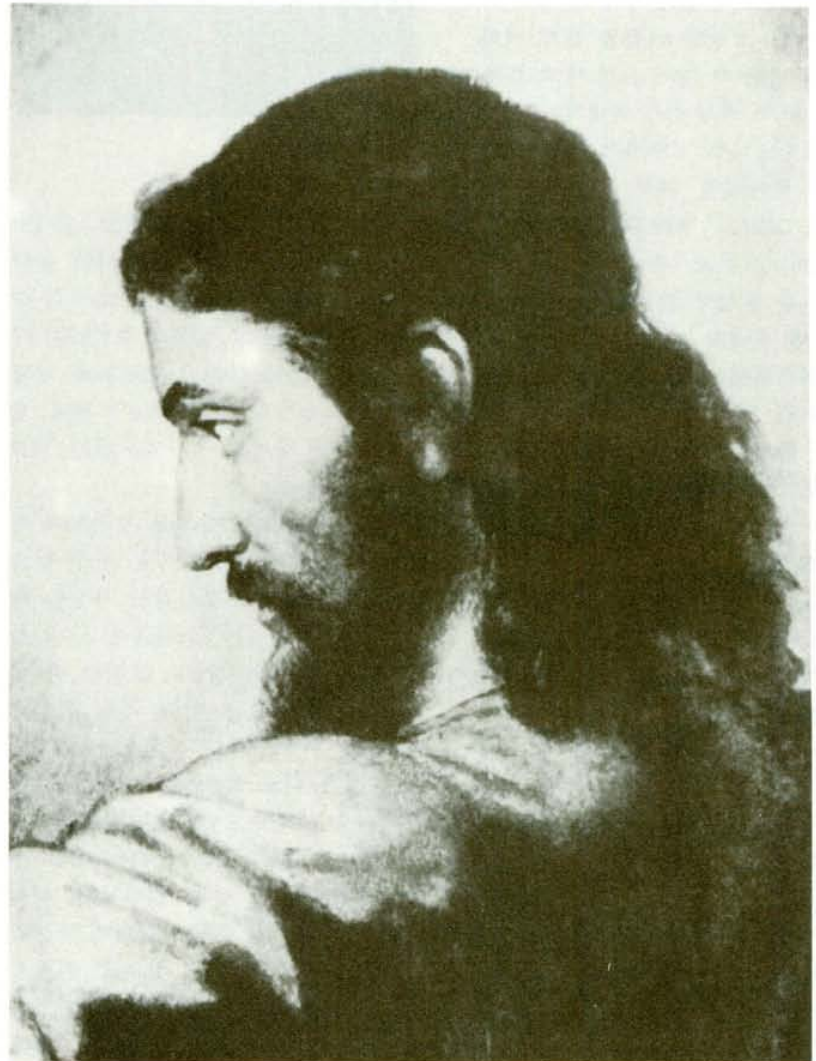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 우리는 슬픔이나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신적으로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아들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갚기 위해 받은 고통을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를 갯세마베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우리 인간 모두가 크든 작든 간에 죄를 짓게 될 것을 아신 주님은 만약 우리가 회개하여 그를 좃고 그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우리의 죄 값을 그가 대속하여 치루겠다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할 때 화평을 느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란 주님의 말

씀은 그의 진심을 잘 나타내 주는 말 씀입니다 후일에 저는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계명 안에서 산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는 경전에서 읽습니다.

저는 저의 손과 발을 내려다 보고는 그 더운 날 십자가에 매달려 못박힌 손과 발이 온 몸의 체중으로 찢기고, 온 근육과 신경이 고통에 신음하는 그 고통을 상상하려 애써 봅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요 19:30)라 말씀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기까지 고통은 멈추지 않았읍니다. 이 고난은 바로

“보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 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라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다시 듣게 되니 저의 마음은 확신으로 부풀어 노래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19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마치 그 일이 어제의 일처럼 가슴에 생생히 느껴져옵니다.

모든 복음은 승리로 끝을 맺음을 저는 경전을 읽고 압니다. 주님은 부활 하셨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예언으로 예수께 주어진 이 이름의 하나 하나를 생각해 보고 그 각각의 뜻이 저의 가슴을 울려 줌에 놀랄 뿐입니다.

구름이 그를 감싸 그들의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11명의 제자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게드론 개울을 건너 좁은 길을 통해 회중이 모이는 집회소로 가면서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해하는 바대로의 희망에 부풀어 있는 모습을 저는 마음 속에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신의 영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그 큰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저는 근 1700년 동안이나 영의 빛이 없었던 그 오랜 암흑 시대에 대해 아연해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혈족인 미대륙에 있는 백성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전 즉 우리의 귀에 익지 않은 물문경이란 이름을 가진 경전을 읽어 봅니다. 하늘에서 그들 위에 내리신 일과 신전 주위에 모인 니파이인들의 무리와 이들 백성의 폐부에 스며드는 듯한 하늘로부터 들려 온 음성을 이 책에서 읽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삼 11:7)라는 주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두 번 하신 말씀을 이제 여기서 다시 듣게 되니 저의 마음은 확신으로 부

풀어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한번 구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아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진실된 것임을 압니다.

저는 이미 이 위대하신 분이 아버지의 맏아들로 영의 상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경전을 통해 읽었으며 따라서 그가 전세의 영의 상태로 야렛의 동생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을지언정 놀라지는 않습니다. 야렛의 동생이 주님의 손가락을 보고는 사람의 손가락과 같음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예언자를 놀라게 하였지만 저를 놀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예언자에게 자기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 주셨을 때 저는 놀라지 않고 다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저는 경전을 더욱 많이 읽고 공부할 수록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저는 현대의 이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시현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가 칩레를 받을 때 그리고 다시 산상에서, 그리고 니파이인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처음으로 그 때처럼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그의 아들과 거룩한 빛 가운데 서서 요셉 스미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17)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와 같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진실로 저의 아버지임을 압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엘로힘, 즉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곳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으며 그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와 똑같은 소개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만약 어린 요셉 스미스가 그 진실함을 증거하였다면 그는 그 진실

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153년 전에 그 숲속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으로 그 시현이 참됨을 압니다.

1700년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라고 선포한 사람이 없으며 예수라 주장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1700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위대한 진리의 선포를 흉내내거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달랐습니다. 1820년 봄에 영원한 진리는 그와 같은 방법과 권세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에 임한 사람이면 천국이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함께 나타나셨으며 아버지께서 약 2,000년 전에 세 번씩이나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선포하신 일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년은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성스러운 말씀은 영원한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는 나의 간증이며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대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상에 돌아와 천년을 통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성임받은 예언자요 대변자에게, 그리고 그분을 도우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런 지지를 보냅니다. 해폴드 비리 대관장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은 1829년에 하늘의 사자가 요셉 스미스에게 전한 바로 그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성신의 영감을 받은 그분의 말씀은 현대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온 세상에 전합니다. 아멘. ㉞

143차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끊임없는 신앙의 행사



오 레슬리 스토운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믿음은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또 이들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없이 신앙을 가질 수 없으나 신앙없이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기초이며 신앙은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행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성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란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즉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활동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인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히 없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고 신앙대로 실행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의로운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겠습니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만 후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일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다. 그 대답은 다른 성품을 기르는 것 같이 먼저 기초를 세운 후에 생각과 행동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신앙은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다”(교회정사 제3권 37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대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지도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발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이 더욱 굳어졌음을 저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능을 소유한 형제들이 축복한 성찬을 드는 것은 저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떼어 놓은 떡은 구속주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며, 성찬 컵에 담긴 물은 그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신앙에 보탬이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신앙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기도는 목소리로 나타난 신앙입니다.

신앙을 기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로운 삶입니다. 죄는 신앙을 멸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신앙을 파괴합니다.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증오는 신앙에 자양분과 생명

* 역자주: 우리말 경전에는 믿음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말하는 참 의미는 신앙임.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평야를 지나 올때 위대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을 주는 하나님의 훌륭한 영을 상하게 합니다.

신앙 생활의 밝은 빛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마음이 정결해지고 뜻이 확고해지며 훌륭한 인품을 도야하게 됩니다.

품위 높은 생각과 기도와 헌신과 의로운 행동으로 부단히 신앙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신체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바에 못지 않게 영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값진 모든 물건처럼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분한 값은 영원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좇아 살으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길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도의 빛 1974년 3월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해낼 때 신앙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하셨고 모세는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인을 모아 여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인의 탈출을 저지하려고 애굽인들이 뒤를 쫓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홍해에 다달았읍니다. 이제 막다른 곳까지 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 막혀 있었으며 뒤에는 애굽인이 물려 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

의 끈을 잡고 강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 그 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겟노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보라...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출애굽기 14:12-14, 16, 21-23.)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팔을 내어밀라 하시고 그리하면 그 바닷물이 다시 마른 땅을 덮쳐 애굽인들을 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그의 신앙대로 행했으며 이에 애굽인들이 멸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그의 성역을 통해 큰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는 14세의 어린 나이로 경전을 읽던 중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경전의 이 구절은 그의 마음에 크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절실하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에게 행동을 불러 일으켰고 그래서 그는 숲속으로 가서 기도를 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요셉의 강한 신앙이 없었던들 우리의 생애가 현재와 얼마만큼이나 달라져 있을까요!

브리감 영 대관장님도 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

언자 요셉이 계시받고 가르친 모든 원리와 교리를 믿었으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말일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특권에 좇아 살아 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대로 생활하고 매일 변함없이 성신의 충만한 속에서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간구하였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설교집 제2권 114페이지)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평야를 지나올 때 위대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과 그밖의 대부분의 세상적인 그들의 소유물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를 남겨두고 교회 지도자를 따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실행에 옮기고 화평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구했으며 그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속도가 느려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영광 중에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셔서 세상 사람들을 당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을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진리로 귀의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끈을 잡고 강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 그 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

“부단히 신앙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신체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바에 못지 않게 영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리는 신앙을 기르고 발전시켜 더욱 강한 신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인격을 도야하고 강화합니다. 이 귀한 품성은 영원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보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나 오늘날처럼 신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지도자와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으로 저의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노력을 다 바쳐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했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좇아 생활하면 누구나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매일 신앙을 기르고, 계명을 지키고,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을 위시하여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며, 우리가 끝까지 참되고 합당하게 생활하여 가장 큰 축복인 구원과 승연과 영생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43차 연차 대회의 말씀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해롤드 비리 전대관장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불러 주신 총관리 역원과 지금까지 봉사하여 온 모든 그 밖의 사람들, 십이사도 지역 대표, 칠십인 선교 제일 정원회 그리고 여러 조직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직책에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직책에 책임자가 나타나 그 직책에 필요한 열쇠를 부여받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며 우리는 경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자 엘마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강독에 앉아 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맺을 성약의 성질을 설명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성도의 빛 1974년 3월호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느냐?” (모사이야서 18: 8-10)

저는 이 말씀 중에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란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나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롬니 부대관

장님과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 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내일 신전에 갑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께 가서 그 잘못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회개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자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은 제가 신전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한 다음 모사이야서에 있는 베냐민 왕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곳에는 침례 받기를 기다리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육욕의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공홀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마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 받게 하시며 우

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소서...

“저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 ...”(모사이사서 4:2-3)

여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이든,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보상했으며, 그 잘못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갖는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도 합당한 권능을 가진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셨는지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동안에 양심의 화평을 찾았다면 바로 그 증거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이와 다른 생각을 갖게 하며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크나큰 거짓의 하나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서는 현대의 계시를

“용서의 기적은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길을 걸으며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접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 이 말씀하시니라”(교성 82:7) 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와 양심의 고통으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는 자와 어디에 가서 답을 얻을 지를 모르는 자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회개와 보상을 하여 양심의 평안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형제들의 말씀 가운데는 세상적인 것으로 궁핍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까지도 도우라는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보는 가장 큰 기적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에 병이 나있고 낙심하여 어디에 마음을 두어서 안정을 얻어야 할지 몰라 신경이 파피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고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며, 또 그들이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몇년 전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케양이 점점 악화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내 조안은 선교 여행 중 아직도 여러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더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다음날 아침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비행기 앞좌

석에 앉았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뒷칸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는 어떻게 하여 그같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축복이 아주 필요했다는 것을 몇시간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걱정에 싸여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밤 11시가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제가 전화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의사가 전장 상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피로하지만 곧 나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큰 출혈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출혈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있었으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도움이 미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이 큰 책임을 깨달았을 때 만약 앉아서 그 책임을 생각만 해야 했다면 저는 의기를 잃고 그 일을 전혀 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를 받아 오늘 우리가 가르침과 간증을 듣게 된 훌륭한 두분 엔 엘튼 테너 부대관장님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을 지명하였을 때 이 책임들을 저 혼자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 아

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매주 신전에서 만나며 만날 때면 방 저쪽을 봅니다. 거기에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열 두 명이 있으니 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거룩한 사도의 권세를 받은 분들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분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홍륭하신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스테이크부장단, 선교부장단, 감독단, 신권 정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에 제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실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신전의 제단에서 간곡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대회를 마칠 시간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을 들려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로스안젤리스 신전 헌납 직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서너시쯤 되었습니다. 나는 꿈이 아닌 시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는

나는 오늘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 없었던 새로운 일
성도의 벗 1974년 3월호

이었습니다. 나는 한 큰 영적인 모임을 보고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서 있었으며 한 번에 두세 명의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는 흔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에 봉사하는 것을 배우라. 이 길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길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분명히 제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격정해 주시며 구세주의 재림을 맞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표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영감역 24장을 읽어야 합니다. 값진 진주 요셉스미스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성구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물러나지 말며 주님이 곧 오실 것이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가정의 밤에 가족들을 가르치십시오

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하늘의 이슬처럼 그들에게 내려 올 것이요 성신이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영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충실히 이행하여 심판의 날에 의로운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143차 연차 대회 말씀

모든 회원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 이 호 남

교회에 속하는 거의 모든 회원은 사실상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수있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에게 족장(당시는 대제사와 축복사직을 겸했다)의 축복을 주었고, 그의 12아들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후손은 족장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그들 신앙에 따라 조상들이 받은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신권의 반차는 아담 시대에 제정되어 이같이 그자손에게 전해 내려 갔느니라.

“곧 아담으로 부터 셋에게 전해 졌나니 셋은 69세에 아담으로 부터 신권을 받았고 저(아담)가 죽기 3년전에 축복을 받았으며, 또 그의 후손은 주의 선택된 백성이 되며 이세상 끝까지 보호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으로부터 받았더라.”

이 약속은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 에게도 다시 주어졌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 : 3)

“또 네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 : 18)

아브라함은 다시 아들인 이삭에게 이 축복을 거듭 확인 하였고, 후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전달되었으며 다시 야곱의 열두아들 에게로 분리되어 이스라엘의 지파로 알려진 그 열두족속에게로 전달 되었다.

1957년 6월28일 당시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모든 스테이크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축복사의 축복은 받는 사람의 혈통에 대하여 영감적인 선언을 하게되며, 또한 영의 이끌림으로 받는 사람의 앞으로 전개될 생애에 대하여 영감적이고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축복과 함께 축복받는 사람의 그러한 축복된 생애가 성취될 수 있도록 권고와 경고를 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된 축복이 성취될 수 있는것은 언제나 주의 복음에 충실했을 때에만 실현 되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은 기록정리된다.”라고 언급했다.

위의 말씀을 볼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때는 피 축복자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연결되는 계보의 앞뒤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 받는다. 이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기억의 책에 기록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물론 이 얘기는 온 세상 만민이 모두 이브라함의 직계 자손 이란 뜻은 아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의 주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으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뜻이겠다. 축복을 받는자들이 모두 일어나 아브라함을 저들의 아버지로 축복 할것이다. (아브라함서 2 : 10참조)

교회 회원중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은 저들도 위에 언급한 축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직계자손 이 아닌자로서 교회 회원이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인 신권의 축복을 받게 될것이며 직계 혹은 입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된 자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의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땅의 모든 인류는 각각 저들의 성실함에 따라 영생과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한 신권 지도자의 체제의 준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요셉스미스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계시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침례 요한이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 에게 아론신권의 열쇠를 회복해 주셨다. 엘리야는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신전 안에서 예언자 요셉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방문하여 산자와 죽은자의 인봉의 축복과 열쇠를 회복하셨다.

요셉스미스는 모든 열쇠를 숙기전에 사도 정원회에 넘겨 주셨다. 그리하여오늘날 까지 이 신권의 열쇠는 보존되어 전달된 것이며, 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어 다스리실 복천년에 이르도록 계속될것이다. 우리회원들은 모두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기 위해 감독의 추천을 받아 축복사를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생과 삶을 영위토록 계명을 지키고 구원의 옷을 입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나는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늘 번을 가르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